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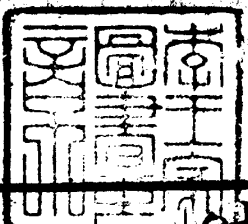
繪音諺解

部	史部
類	詔令奏議類
番号	2-1952
冊数	1-1

1
1

013

部	史部
類	詔令奏議類
番数	11
冊数	18
備考	上西 3/2



제

제주대령정의등고을부르와민인등의게
하유응시느글이라

왕이이러트시골으샤디즈흙다너탐나흔섬
이바다밧천니의이셔싸공응느골과유즈
느하후씨의양쨌긋고히로쥬흔물을드리
은한나라대완긋가은쇼로히싱을긋초
며비즈열음으로변두를공례응며쇼그쥬
개의구슬파터럭과가족과대와나모와약
지의무리가히그릇쓰는디즈뢰응며협도



와저울의쓰이느거시손가락을이귀여굽
히지못을지라그빅성은돌을모화답을응
고쨌를역거집을응여풍속이어리고검박
응되네로점양응며질병이적고장슈응느
니만흐니이히도의흐도회로디다만그싸
히돌이만고여외여오직보리와꽃과조히
나며살도리를병영응문비길희붓쳐시니
슬프다쇼흔위티응고귀험응도다이러브
로나라히특별이진넬응물드리워보기를
안히싸와긋치응여므릇써위로응며어르

茂朱赤雲
史庫所藏
府寄贈本

문지며민연하여불상이넉이느밧재극진
아아니흥미업느니라거룩흥시다우리
선대왕이지도를상고흥시고공션을슬피오
셔정수를내읍시매어지르시물베프읍셔
주리를알외오면비의곡식으로가먹이시
고방물을드리온즉냥식을즈뢰하여보내
시며지조를찾고폐막을무르랴흥신즉은
득슈옷납은신하를보내시고구실을경히
흥고형벌을슬피랴흥신즉비양병부춘관
원을신척흥시니흥섬을둘너멋만이나흥



싱령이먼디을환안과져흥시느 교화의
젓고밧이연지오십년이라과인이어극흥
므로밧쳐느아직흔혜와흥은이너희등의
게밧춘배업느니라밧희것춘히업스문비
록하늘모음이권련하여도라보시물넉이
나비의표류흥기이시문만히바다물벌이
느소소지아닛느디붓그립도다바다히대
철의막혀시니알프며피로오미이시나할
곳이업스며지조와모략을품어셔도천거
흥여싸혀내미계제업스니내심히불상히

덕이노라슬프다공헌하디허다그은물종이
폐단이반드시더할거시나뉘즐겨너희등
을위하야알외며고을벗곳아문에시기는
역스반드시만할거시나뉘즐겨너희등을
위하야덜니오지조나기는실로고금이흔
가지요착흔모음노리기는섬과뉴지간겨
이업스니적근집스이의엇지고유와고도
귀곳흔준매하고큰사름이업스리오마는
뉘즐겨손으로공하며역근지게가온디김
칭과텅렬부곳흔요도와절이업스리오마



는뉘즐겨기려들추리오원목장과뵈목장
이만하즈당하여능히물을해하며사름을
해하미업스며고기잡는사름과비트는사
름이평안하고종용하여능히산업을일히
며처소를일논탄식이업스며송스와옥스
는새치며벌단하미평하다일크라파연원
통중을부분뉘업스며아전과판속의보채
며아스물통패히금단하여파연근하늘남
스니업스나이가하미빅성의근심이완연이
근가온머이시니미양하미번남뵈을도라보

면옥식이든지아니하니슬프다 멀며갓가
오미업시다 내의적지라이제너너희등의
부뫼되여능히부모의척망을다하지못하
니밤의싱각을니르헤매엇지스스로붓그
럽지아니응리오이에니조를명하여문무
의가즈와니력잇는쟈를싸세고을의네관
원을밧고아하여곰빅성다슬이느정스를
새롭게하고또전홍문관응외박턴형을명
하여여수를응이여가나의심복을퍼고인
하여하여곰과거를베퍼싸오게하니이정



히원이잇느니반드시일오고지조잇느니
반드시반일썩라즈흠다너대쇼군스와빅
성은고요히나의거듭근추히알되물듯고
나의키고츠는뜻을본바다내게숨기미업
시응라슬프다저즈음씩인복을특별이명
하여수를감응나블과아흠쇼의할터력이
라혹일반분의호형이이시며여섯피로온
역스의난회응을형과응과각산양의기로
밧는거슬창시흠과구점군의이전규례를
길내덤과우마감목의새로권상응을년양의

미또전의비흐면침착흐여유의흐미잇노
냐그남아빅성의병과고을왜의관계흐자
느일이크며적그미업시다모롬즉이어스
의게드라가할나네그올너들니기를기드
려너희등을위흐여쳐분흐리라그러무로
하유흐노라

상지오년신통계하하한의통정태우니조참
의겸 규장각직제후츄관슈찬관지제
교신행지검봉

교서



경귀대소민인등의게하유하시느룬음

왕이이러트시골으샤디차흠다너귀던^{셔고}

^이라말^말엿민인아북이나의심복으로니르^말를

드르라내일즉주례를보니열두가지흥년

정스에정부^구단^말실^을이라^무를박히^하미^태례로

들재예거^하야^시니정부를박히^하는^중요

로운도리가구실을덜고다못환자를감^하

미에셔나은거시업손지라금년^적시^겨어^름

^이라^말귀던과팅남과냥회흥년으로배고^하

되귀던이^마장심^하고귀던^중에도바다^것

㉞ 룬음

一一

과들갓가온고을이또더욱^심물^하니^대개^쳐

음은기물고나^종은^물지고^충지^와풍^지로

버스이드러물잇^버우리^화가^말이^라란^를

해롭게^하는^밭재^잇지^아닌^배업^스니^슬프

다^마물에^느몸^소빌고^충지^예는^포제^로비

러^호번^보람^에내^먹기를^늦개^야고^호번

비에^내오^슬밤^드도^록벗^지아^니고^야봄^으

로^브터^기을^에가^도록^내감^히겨^를고^야쉬

지^못하^야시^되고^참내^내빅^성으로^하여^금

이^러호^귀근^에걸^니이^게하^니고^요히^상각

흐면허물이 다나흐사롬의게로말미암음
이니동토수쳐니를들니빅만이나흐싱팅
이뉘나의적지아나리오마는글은피턴기
튼디는국가의근본싸히니당나라히이셔
는괴방 고을일
흙이라이오한나라히이셔는삼퇴
싸일
이라흙라

원침을밧드읍고보장을버려물파못해유충
이오비와수레의도모지못는곳이라양도
이셔울
이라를한위흐고제노를응접흐야구실은
만코중흐고빅성은간난코여위여비투즐

류음

二

기닌히 이풍
라년를당흐여도오히려창오 관가
고라
애바치기에곤흐거든흐를며거촌히 홍년
이라
를만나총알 구실일
흙이라 밧치기를엇지판두흐
리오별은허분야에잇고기를절은보야흐
로김허가니저정작이건괴치아나흐고결
실이잘된디들은전을마초고박을다스려
네턱목을로다나오거논슬프다나의괴니
빅성은근초신고흐고피로움을격고참혹
히지손 홍년
말이라 단 한기를넘어임의담척의
거들거시업고쑈슈 이병
금 흐 못 의나문나가

업스니엇지너희등이브즈런히아닌거시
리오나의부덕을말의암음이랴회라너
희등이올어러시러금버부모를섬기지못
하고굽어시러금버쳐즈를치지못하야오
오하고황황하야호구홀게척이업스니
슬것도업 오히려어느겨를이이셔조와썰
을내여버공세_{란나말이라}와다못판적_{가관}
환자란말이라을응하리오창을십월에열면_{환자}
말이라독한해일경에두루하야밧치고저호
주거복의털을긋기긋고밧치지아니흔즉

ㄱ류음

三一

옥에뇌슈하기로버더으니그형세엇지시
러금업고안고잇클고드리고흐치여네턱
흐로가지아니하리오나파인이버게경_{성벽}
들의간난을설위의브름을듯는듯하야을
병_{김흔밤을}의버개가평안치아니흔배라
너또싱각하니타라리멧천이랑나라구실
파멧만섬판가한자를일흘지언정_{침아호}
스나히빅성파호계집빅성이라도구학_{형클}
과웅덩에구은양을안자보지못하야이
에감소를명하야전기하야발순하야디꼭

세흔밭헤세더러준곳이^{너름에한지}로호야
로더신으로세호라^{외에}만이^{앙으로}지앙
호병을나름이라^{전혀}말이지^못호곳을들마
을바다전불패검^{호단}말이라^{호곳}을들마
다사라가며곳곳시주세히슬퍼탈을잡으
면또호아오로구실을덜고저호노라환곡
에너르러는우심음은삼분일을감호고지
다음은스분일을감호고초실음은오분일
을감호야일도대소민셔로호여음고로로
호걸긔치보는은틱을넘게호고저호노니
우심음면파니가온태도더우심호곳은구

문음

四

실감호기를엇지삼분일에구애호리오비
룩후고절반을감호야도가치아닐배업슬
지라또드르니전곡^{밖곡}식^식이^이주^주못^못답^답곡^곡은
라^라이^이에^에셔^셔나^나앗^앗다^다호^호니^니비^비룩^룩이^이의^의감^감세^세호
밧기라도응당밧칠쇼중에또호상당곡으
로침착호야헤아려더봉호기를허호노라
구실노번즉덜고환자로번즉감호너이러
호디너히므리향니를브리고천척을셔나
가려호들장쳐어드러가리오주흡다나의
민인은그사논바의편히이셔후도류산호

지말지어다 만일 그 기장 전련

간난하고
머 못 견디는

이모양 라 양 하야 더욱의 지업소뉴는 또 분등은 한 계

문을 기드려 내장 초키 춘하 거드 창을 열어

진디 흘찌니 슬프다 너 귀년 옛민인은 북이

나의 심복으로 나르물드르라 슬프다 지분

표하기는 허실이 상용하기 쉬워 오야 가연

성이 호집은 문두몬져 억지로 만히 엇고 졸

양 곡 인 식 미 라 덕 라 하농소노아 오로 험능하야 밤

논디 드는 지라 환자를 덩뎡하는 형이 미양

세말에 이심으로 간난호뵈성은 일즉 실은

류음

五

은혜를 남지 못하고 향중의 호강하는 냥반

과아 전의 머리들은 시러 금배간사하기를

발되니 버그으기 심히 통분하야 매이럼

으로 기을 이 채 못되기를 멧치이 리퍼나르

기를 베프노니 능하고 능치 못하 기는 슈지

원이 의게 잇고 판팅하야 검직하 기는 도뵈

감 소 라 하이 시 식하 나히라도 불근하니 이

시면법이 상위 이 베 켈 라 하 예 들니 엇고 방기 고 영 과

이 라 하는 지척이라 호정 집 안 제 계 와 솔 이 에 셔

간격이 업소나 내맛당히 그부즈런하며 게

어름을샹고흐고희실흐여샹파벌을희향
리너오회라디꾸세흔디와밋만이앙흐디
지잡기와우삼문디와후지초곳에환곡감
흐란팅은내숫에초게흐미못되고또흐너
희의게은혜를베펫노라니르느일도아니
라지와실은맛당히구별흐미이실해서오
밭고감흐기느다회보^{복성을스랑}흐기로
났느니라농소낭식파진홀홀거스다너의
밥과죽이오나라창과소소고느너의개장
김초와둔거시란말이라과고흔거시너너희등은다모

ㄹ류음

六

름죽이드러알나블잇정퇴흐느외에곡물
은이제독과병엿거시진치아니흐새를미
처각각맛당히힘을싸라일즉이바치게흐
라환봉^{은곡식타의밭극식으로디}신^{하여바치라호병이라}하라흐
느팅고흔거스아직목전을구흐느일이오
국민을쥬홀흐느정스느맛당히제후에들
해서너즈흙다나의민인은밋고겨정을말
지어다슬프다부옥^{초가집}이라^라엿질고느완연
히내몸소당흐듯흐지라너희등이안도흐
물드르면내눈섭이가히퍼일해서오너희

등이안도치못함들드르면내마음이불붓
는듯을하시니슬프다너기던엇민인은불
이나의심복으로나르물드르라

류이

七

유호셔대쇼민인등륜음

왕이이러트시골이샤디쇼가 나라이란 의벽

성을봄이부모의지식을봄기흔지라사름

의열아들을두엇는재아흙아들은먹여비

부르코한아들은함함 동쿨이문거 하야신즉부

모의모음에그장춧아흙아들에편안이너

겨흐아들을팔시하야베썩고추기코마시

우고먹일바를싱각하지아니하리오목하

에호셔일이정히이코호지라늘농형이다

숫도와냥도 송도와강화 논다행이크흥년

륜음

은면하여시나경귀와호셔와령남은지앙

을고하너내이룬위하야두려위속야에겨

를하야편안치못하너엇지감히흔두가지

구실을덜고고홀호덩소로베능히그부모

의척망을극진이하얏노라닐으리오그러

나을환상의분수하야정퇴함이경권즉초

실흔디서지두루하교령남인즉또흔지초

곳선지밋쳐시되호을노호셔만싸져시니

엇지내호셔를니쳐층등하야달리봄이리

오슬프다호셔싸히경귀와령남에소이하

야곰음과장매고고충지와풍지도기트니
복전에흔번비경기에셔는몬져고령남
이에셔는후에하야기장지남은곳은경의
우심흔곳이에셔다르미업고장잘되다
흔곳도도로혀령남지곳곳만못하얏는
다경귀와령남이로터부러지지못흔즉벽
성이그골오되나흔호을로엇지경귀와령
남에뒤지간고아나하리오저즈음새내기
을겨을즈음의일례로 경귀와령남과고
치단말이라 구
실을덜고져하디니포벽의본등하장해에

ㄱ
류음

二

정퇴하기를형치아나고기봉 라른파식
으로의신
이 밖년말 하기를형하니이름으로베아직형
흔머로시하하야시되내스스로즈음에닐
니골오디고그러하가엇지고그러하리오
닐넛더니요사이드르니본도민정이홀리
급하야들소이에스담석 항과섬이
란말이라 에담은
거시업고저재가온대는시직이등용하야
황황하야도석을보전치못하듯하리라조
베세밖디디고하고환상지축에필박하디
무던하야가음사롭도오히려장만하기에

렵거든 슬프다 저가 난 흥 비 성은 장 초 엿지
판득 흥 리 오 캣도 람이 는 집 에 잇고 역 스 흥
던 수 뒤 는 처 음 으로 그 처 무 을 에 는 술 이 잇
고 창 에 는 곡 식 이 이 셔 션 전 술 을 조 초 리 흥
고 음 식 을 만 히
이 라 단 말 흥 야 부 모 를 공 양 흥 고 근 호 치 위 예
문 을 비
이 라 단 말 흥 야 지 어 미 와 조 식 을 즐 기 미 오 직
이 쎄 그 러 흥 거 늘 슬 프 다 너 의 주 리 비 성 이
날 마 다 환 상 지 축 흥 을 님 어 저 그 면 루 설 동
혀
미 는 노 이 몸 에 밋 고 크 면 안 폐 우 이 란
말 이 라 로 집
을 삼 으 니 인 성 이 이 에 니 르 매 엿 지 불 상 처

문음

三

아 니 라 오 즉 금 리 창 환 상 밋 단
말 이 라 흥 야 지 임 의
들 이 념 엿 는 지 라 아 지 못 흥 노 니 밧 은 환 재
멧 섬 이 나 흥 지 비 곱 하 부 르 지 지 는 소 리 와
적 슈 로 빌 며 쑥 는 형 상 이 완 연 히 귀 에 들 고
눈 에 보 는 듯 흥 니 배 엿 지 참 아 짐 이 편 안 흥
며 음 식 이 온 편 흥 리 오 당 초 에 도 비 키 정 퇴
흥 기 를 청 치 아 나 흥 기 는 새 로 도 임 흥 야 스
정 을 미 처 아 지 못 흥 여 그 러 흥 던 가 전 례 업
슴 으 로 번 거 히 감 히 들 니 지 못 흥 야 그 러 흥
던 가 더 락 고 더 락 기 이 에 니 르 니 엿 지 도 비

을 직망항리 오실 노나의 허물이 라 경귀 비
성도나의 적지 오령남벽성도나의 적지 오
호셔벽성도쇼한나의 적지나한가지어셔
죄로디후베프고혹베프지 아닌즉우혜닐
은바아흡아 들에편안이 녀겨호아 들을 팔
시한단말이 진실노갓갑도다 호를며히비
치창츠첨을 어다만원날남즉의남아시니
이제를미쳐닐으지아니호면니두에비록
여러갑절을감함이이셔도쇼민의슬파피
임의다호였고니신호갓판망호신호우강호

ㄱ 른음

四

호란말이 카의게도라가니 내심히통분호야
호노니 본도금년환상중에우심호고을과
밋지초고을우심호면은삼분일을감호고
우심호고을지초면은소분일을감호고우
심호고을초실호면과지초고을지초면과
초실호고을우심호면은오분일을감호야
배내벽성의일분힘을누기게호노니벽성
이이신후에야곡식이잇느니진실노벽성
의게니호량이면곡식을어이앗기리오전
실로우심호면과니예는다쿠실을달고전

하낙농량도에셔할거시오진조도에셔할
거시니그정퇴하기와그밭기가다빅성을
위함이라이뜻을가져북게고하느니임의
정퇴호외에는즉시이새를미쳐밭쳐하여
곰오래근치말게할지어다또호분수하여
정퇴호즈음에지와실파가난하고가음연
이를근희여분별하여또호쇼곰도잡되게
말지어다슬프다닷새를비오지아니하면
보리가업고열함을비오지아니하면벼가
임스다하니 벧이클라엿을곰음은호갓닷새와

문음

五

열함을쏘이아니라처엄에보리환상을벼로
밭져하기는뜻에닐으되기를농사가보리
농스에셔나을싸호엿더니이제는벼농사
의후년이도로허보리농사의셔심하니벼
환상맛당이바들셋드오히려더러주거든
함을며또딛신으로벼를하리오올벼름보
리환상을벼로바드려호거슬트별이올모
름기드려도로보리환상을민들게하노니
을모함을밭지아니함은 별로 전교겨서경
괴와 호쳐와 밋다른

도에 보리 한 상 베풀어 보려 하던 것을 다 당
년 모를 감하고 특별히 밭추를 기르려 도로
보리 한 상을 민들라 하신 태거차라리 백성
고로 이 말 숨이 계시다
의게 일코져 흠이 나엇지 공용하시라
족하며 족지 아니키를 의논하니 오슬프다
환곡외에 또 한 두어가지 일 소민의게 절긴
흠이 이시니 지분표항기와 진흠 시작이기
라 각읍에 지분표항제 파수드그릇 흠이 업
서 능히 퇴징항은 원통 흠이 업스며 다른 곡
식 세흔디도 또 한구 실을 면하여 과연 비여
먹는 효험이 잇는가 입는가 내아지 못하노

○ 論 音

六

라니년봄에 진흠을 시작 흠이 비록 성명라
해셔라 오 이이시나 세전에 민성이 류산
신병이라 오
항고도 망항고 넘어지고 신을 나는 념네 업
슬년가 아닐년가 슬프다 나의도 퇴파슈지
라 원이 들이 능히 무음을 다 항고 정성을 다 항
야 나의 죽어가느 백성을 건지 못하야 하
스나 희와 한계집아 라도 굴헝에 너머지는
환이 잇게 한즉 일 흠이 비록 진흠이 나 진흠
아니므로 더 버러기 둔지라 비록 후요 항으
로 죄를 면하나 호을로 무음에 붓그림지아

니호랴져호셔를보건대셔을셔망이갓간
오니호슈의^라어셔를들리면또호열을보롬
에그부즈런호고게어름을상고호리니슬
프다슈지가블근호면해가일음빙성의게
밋고도빙이블근호면해가일도빙성의게
밋니만일나의심복의닐음을듯지아니
호고심예유범^고아모노^라듯도아니^라호야죄
에걸니고벌에다호면내죄주는거시아니
라제스스로범함이니엇지닐으되뉘웃츠
미잇노라호리오슬프다니호셔빙성들은

㊦ 룬음

七一

쉽고피로음이이셔도오직내잇는지라밋
고근심을마라각각제집을편안이호야의
지업슨쟈는진홀호는되로나아오고전토
잇는쟈는밧갈기로나아가기리나의태평
호빙성이될지여다하늘이빙성을도으시
는지라홍년이었지히마다이시리오이런
고로닐이노라

유동외대소신서륜음

왕이아러트시골으샤되나라히턱양의일에
모양흔번통연히나르고져흐되미처능히
못흔쟈는진실노차마붓을적시지못흔연
피러나이제나르러일똥히층층이나고소
기고후흔게함미구을너심함나만일모참
내나르시아니흔죽이엇지빅성을소김과
다르리오대져투양의일이난후에역적의
변지으미물웃몇번이노호셔와히셔옥스
논투어의논치말고하늘을헐뿌리고히를

륜음

우짓기는턱징과유빅이잇고게교를베퍼
군소를모호기는인방과경너등이이시니
이것들이비록머리를고치고는출밖고와
시나실인즉창지년함고속이니이여턱양
으로배근본을삼지아니함나니업스니슬
프다나파인이정성이족히배완악흔놈을
감동치못함고북으미족히배간악흔거슬
슬피지못함야처음에서리를뵈는경계를
범홀이함여 저근일이크기서러로 길너하
얼음됨 단말이라

지못함이 남은 흥얼이 더욱 성하니 기만이
 고연유를 궁구함면 오히려 누를 허물함이
 오그러 함나도 정의 배업 슈로 음바든 바와
 덕양의 배역적된 바와 다 못 퇴징과 유빙의
 무리 배쉬노라 함된 배 쓰흔 스스로 밋과
 히이시니 대져 부뷔이 신후에 부지 잇고 부
 지이 신후에 군신이 이시니 군신과 부주의
 도리 진실노 부부의 계근 본 함 엿논 지라 부
 부랏 거스 사람의 큰 룬 기오턴디의 덧덧함
 법이라 그런고로 례에 쓰출 짓는 의를 불히

문음

一一

고 쓰출 짓 단 말은 인 룬이 부부 듀역에 수레

박회버서 지는 경계를 드리위시니 수레 박

지 단 말은 부뷔 화치 못함 면 박시 순치 못

염에 빅성이라도 오히려 혼인의 의를 도타

이 함 거든 함 물며 놓흔디이 서치 국 평턴하

함터히냐 음양이 어귀면 비아니 오고 궁중

안히 발나야 교해호로니 이니 강함 신디

버법을 본배오 니 강은 아 함 터 영이 순 의 관

제버 두남 덕나라 희 교해비로 소미된 배라

스 관 저는 문왕의 태 함 함에 곳고 오 랠도리 함

은듀역두패일 흠이니음양이비합호
야오래도룩변치아니물니름이라
네로
초차성인의반드시힘쓰는번즉내비룩덕
이업스나엇지후삼간이나여귀범흥흥리
오그러하나동궁에이시모로부터이만은
말에미이여중궁의례법은흥즐기듯되외
간에말은본분하니대개내병신년역적의
당의게미임이빠혀저희간악한정상을다
뵈게알물새려증싱의도로지버무는흥흥
도모를품어널니거죽말을부치내여흔드
러볼게교를짓고저하야궁중에일이좁초

ㄱ
료음

三

여박사름이알기어려온즉더옥니르되소
기물더으기쉽고후빅을가히섯그리라하
야근본업스사지람과망녕도이혜아리는
말을느리며주리미고만키롤이괴지못하
니역적흥렬과상간의츄방에셔하던슈작
이모참내명의룩가온대을나저희역적질
하던문안이되여시나이로보는재오히려
가히내모음을알거시어늘그러하되귀히
년녀름에특상이턴하의집일이랏말노버
나를향하야니르니니른바폐하의집일이

란말은엇더흐쇄에엇더흐말이완디이에
감히일노버연석의셔넛드리오대꺼이췌
예상스변이나매권간이 국권간은역적이감
히니르지못홀싸헤감히의심흐야만히
운운흐는말을알외니그운운이란बाट자는
차마형용흐야니르지못홀지라내엄흐말
노를니치나그췌녀염스이에와전흐는말
이크게전파흐야뵈뜨는져재는곰초아닷
고사모흐는장인은피흐야숨어심흐기관
원된져진실노이런일이잇는가아라미리

문음

四

장인을잡기갓지니른즉턱상이이췌예호
조참판을췌여권간으로터브러흐가지로
말을전흐고보기를심상히흐며췌두어날
후입시에방주히입으로내니이파연엇더
호모음과창진고슬프다이러흐말이엇지
하야니르렀나노이진실노내스스로도라
블뜻이어니와나와몸이갓고놈기그르나
신하의국모와져근님금이아니냐이런모
음은빙동호야니르지아닐배업스니곳이
하일이진실노임의하늘파싸스이엔용남

기어렵거늘밋그말이실어금발되지못호
즉썩호미더옥급호야또기만히운운호호는
배의셔덕상이아모도리네조로버상소에
을니니그니른바아모란말은파연므어슬
기르침고슬프다이두역적이흐나흔츄방
의넛판원이라스스로나라도은슈고를밋
고호나흔선정의<sub>선정은네착
호사름이라</sub>호즈손으로
오래산님일흠을도적호여시니내알옴다
이너지눈뜻이도타와밋어맛지미임의무
겁고네를싱각호는뜻을미뤄여블너오미

㊦ 룬음

五

또호브즈런호니대개조흠파구즈를더브
러호가지로호고네로딕접호블고치미업
서평안코가음열고놉고영화로와그즈손
을보전코쳐호미어늘져는이에후와쥬도
되며후우익도되야안팠그로테결호야귀
운파세음이덥그붓는듯호야도정은투으
로마르치블어그릿지못호리라니르며님
금을가히다리와손바닥에희롱호리라널
너날노호여곰태아<sub>말일
라</sub>흠를갓고로잡고
호갓빈그르슬가져앗지아니호면슬희야

아니함이말미아마온배오란지라 종묘
와샤직의큰계교논오직져스를 져스논나
라조손이
이란말^슴 넋니논^음일^에잇거늘그상^수변^처
음으로부터저희무리감히힘을다하야히
짓고막은죽고모음잇는바논길가는사람
이다알거시오기만이도모하기족지못하
야지어말하기이에니르러방조히넘금의
업슨듯함모음을^행고^현현히나라^함음
길손베를시험하니진실노그계피시러금
행^행던들나라^히엇^치오^늘날이^이시^리오

㊦ 료음

六

패역히알외미비록연석에검초이나음^음음
훈자최이의상소에나타나나라^해만일
법이이시면엇지잠간이나용^디하^리오^마
논오^히려^하여^금술^노권^을노^계고^향니
에^편히^잇게^하야^온갓^죄범^을브^려못^지아
니^훈즉^나의^베쿠^진히^종시^를보^전하^야준
재^고노^훈지^극하^니엇^지나^라히^은혜^적다
니^르리^오그^려하^나그^당이^안하^로논^원망
하^심모^음을^품고^{bat}그^로논^구하^는말^을지
어^네글^조주^를내^야니^르되^이네^글조^는중

궁던의의약항을방문과일흥난가문에간
틱항실거조를니른배오다른뜻이업노라
항니그간틱항거조는저희무리힘버희짓
던배여귀이신즉그감히온오되이를위항
야이말을항엇노라항며의약항방문이라
니르문그집일이라알외던말노더브러소
엇지그다르노또그네지파연이의약과간
틱두일을위항야신즉북이니르며의논항
물무어슬새려짐뜻이머리를곰초는말을
항얏노노비루다만원상소로볼저라도말

㉞ 료음

七一

믹낙은스스로잇고기르친뜻은스스로탄
노항니잠간문니를아는쟈는다가히보아
씨칠거시오항갓아썸이아니라속위소_속
소는국영의변드던곳이라에셔저희슈작항던말은내
몬저임의듯고그상소초본이또항속위소
에셔나시니초본에운운항바논이제본네
즈머리곰촌말과긋지아니항더니필경에
네클즈로베고치기논나의말니기를인연
항연피라내일즉속위소에셔드른말과초
본에셔본말을북이도정신하드려니르지

아니 할야 그 죄를 나 토는 말 노 할야 곰 다만
네 주에 밋게 할은 저를 위 할미 아니라 특별
히 차 마 내 지 못 할미 어 늘 저 희 무 리 이 에 니
로 되 외 면 으 로 드 러 난 재 다 만 이 네 글 진 즉
오 히 려 가 히 만 환 할 리 라 할야 천 만 블 곤 할
말 노 배 원 세 상 을 의 란 코 저 할 니 정 상 의 흥
교 할 미 슬 프 다 또 할 심 할 도 다 이 러 할 주 호
셔 히 셔 직 인 의 버 스 스 로 나 라 법 의 범 할 바
와 퇴 징 의 흥 할 말 파 흥 징 의 급 할 글 파 인 방
경 니 의 흥 할 썬 와 역 적 정 절 이 또 서 로 니 엇

㉞ 룬 음

八

는 지 라 매 개 퇴 징 의 전 에 범 할 배 임 의 극 히
흥 참 할 고 제 일 귀 중 운 운 할 거 스 로 배 보 아
도 또 할 가 히 그 범 상 부 도 할 진 무 음 이 평 일
에 본 디 빠 힌 거 시 역 적 상 노 의 무 라 로 더 브
러 다 르 미 업 스 를 볼 지 라 할 물 며 그 말 이 중
공 에 범 할 재 터 옥 극 히 파 측 할 고 당 전 에 의
신 이 라 일 쫓 지 아 니 할 고 내 로 라 일 쫓 르 며
옥 중 에 나 라 히 라 니 르 지 아 니 할 고 할 르 주
로 니 르 미 진 실 노 고 금 이 리 로 듯 지 못 할 며
잇 지 아 닌 배 라 또 할 물 며 회 퇴 로 유 빅 을 미

자흐가지로쎄흐야니어니러나뵤말을업
고업스거슬모화전혀헐썩리고썩짓기를
일삼으니그니뎐을지척흐는말이다저희
무리일즉경영하야모춤내감히발뵤지못
훈재라도로혀나의게허를을도라보내여
하저흐바탕을삼아부처음죽이느게교를
발뵤고저흐며홍징의일에너르러는오히
려엇지니르리오도의예기득히헐썩려사
지즈미버몸에판계흐자는아직두고고금
에쎄쳐업스바궁흥흐고절패호말노배차

류음

九一

아말흐지못흐고감히니르지못흐싸헤니
르니그런고로이나의뵤피를썩고눈물을
머금어즉일에친국하야쾌히나라형벌을
베폰뵤재라또인방마튼놈은처음인즉요
피로운말을부쳐내여인심을속여후게하
고나종인즉뎐디를기르쳐흥호쎄를베퍼
늘노배대장을하고늘노배선봉을하고늘
노뵤은냥관을하야아모싸헤서군사를니
르혀아모고을파아모영문을노략하교아
모닐노말의아마뎐권을범하련노라하던

재항오와태례임의정하고새와날이귀약
이이셔그피슈의뉘낙은임의턱적으므로더
브러년통하고또그일을일운후에츄존하
야대션싱을삼고져하는박재꽃덕상이오
그니른바대장경니는또이턱적의쳐질이
라여솟도롤년결하야적당을모화겁탈하
야바로셔올노드를정절이인방으로더브
러하임으로남기고바로존오되덕상이브
야흐로죄중에잇는교로구하야내기급하
야이러트시계교를베벗노라초소를알외

ㄹ음

니일노보건대전후옥정이엇지하곳으로
새여다덕상으로버근본을삼지아닌재리
오슬프다살기를조하하고죽기를아쳐하
몬인경의기튼배니진실노그혈속파죽자
하논벗이아니면뉘즐겨흥하역적을위하
야므드러더레이리오마논즉금인즉그러
치아니하야하늘사와싸모통이에하몽치
니겨일위압파뒤히하곤기치뜻이기트야
블희서려얼기이고뉘낙이통하며새이여
태라리역적의무리될지언정나라신조는

되고져 아니하니 이니고 연피엇지 함미노
덕상기른자논 비루죄업슬새에이셔도블
웃그친히아니니 그후문이업고 지식이업
서부르미도로혀옥된주를아지 못함리업
초되밋일이난후특별히대가의조손으로
버나라히차마 일활을더으지 못함야죄약
간귀향보내논디그치니 대개족히척망치
아닌는뜻으로나미라져면싸히속을아지
못함는뉴는덕상의죄남으물보고스스로
그후가지로결닐가 두려죄안에노렐함을

음음

十一

은득제몸에다함니기치함고법스에년누
함들마치제집에미출듯함야평일에천함
며아니물의논치말고다이일단의심함고
두려오물품어시니이논내점작이아니라
호셔히셔죄인초스에당해란말서지나기
에니르미라비루면목을본디모로논스이
라도알픈디서로관계함논의논이시니이
에진짓몸슬무리그귀를을인함야속여함
함이며저혀음죽여버그의심함고두려워
함니모음을디함게함니의심함고두려온

모음이 더 호호하고 호호고 앓기느 뜻이 기쁘
며 고호호고 앓기느 뜻이 기쁘즉 원망호고
우짚느 생각이니러나고 원망호고 우짚느
생각이니러난즉 나라 흘겨를 계피이느지
라 역적의 정절을 가히만환치 못흐를 줄을 아
지 못호미 아니로되반드시만환코져호며
역적의 피슈를 구호지 못흐를 줄을 아지 못호
미 아니로되반드시 구코져호야 베풀느 줄을
헐썩리고 희를 썩지즈며 군스를 모하재컬
을 범흐를 거조사지느리호호다호느자느

문음

十二

진실노일노 배라 슬프다 엇지그어리고 아
두호기심호노가히물나칠재덕상스름이
오가히죄줄재덕상스름이니그네스사름
이야무어시간예호리오년니예벼슬을고
치미업고호느일은네와 마튼즉도정뜻을
여귀가히볼새시어늘므어슬의심호며무
어슬두려남람에물과쇼쳐로서로밋지못
함으로 배호호근호즘싱쳐로반드시싸흐
거조를호느노이제일빅집잇느말을에호
사름이도적이되거른사름이장초호사름

으로 배뵈짐을의심하고 배뵈짐된쟈도 또한
창츠스스로의심하고 두려워하랴 망텝도
이 스스로의심내고 우려워하야 그도적을
덥고 고호하야 도적으로 배도적이 아니라
흔즉그가히도적잡손들을 면하랴 만일은
히그도적인 줄을 밍혀 밍을가온대 내친즉
비록보갑법 송왕안석의도적금초변죄주던법이라 엄호모
로도나는 잡아고하면상이 잇단말을듯고
밍을에 죄잇단말은듯지 못하였노라 그런
고로 나는 배호되이 제역적다스리기를피

ㄱ 른음

十三

슈외에오히려기유하야 알게 할도리잇고
버히며치는가온디도맛당이참작하야 접
어볼싱각을두어진정하고 평안케할두클
지제일금호일이라하느니 진실노이무리
죄는 비록악역에범하야시나 정상은의심
하고 두려호모로 낫느니라 반드시그당을
궁핍하고고숨은정상을나토아진멸하야
나문거시업기로괴약흔즉나의듯고져하
느배아니라그러나오직그변피의층첩하
므로중외의영동하를면치못하니도정은

소방의 옷들이 어늘 괴상의 평안함을 보지
못하고 거조는 후광양하기에 갖가와 은 광양
말이 단사람들의 눈은 즉말세를 희지아
니하고 일을 의논호즉 전혀 맛마지정당호
미업고 제도비밀한 장계에 이르러는 비록
즐거호미아니나 호소이 감영과 병영의 서
장문호는 재호호호 맛당히의 심치아니호
덕의 심이 잇고 맛당히 장계에 아니호슬 장
계호니 집에 참위를 참위 고튼 거서라 두미스스
로 그늘이 이시나 먼스 끌어린 비성이 무슨

문음

十四

글인 줄을 아지 못호미 괴이치아니호지라
만일 넷도 희셔러진척장에 호낫글주와호
조각말노요피로온말파불웨호죄에도라
보낸즉엇지 크게 가히슬프고 불상치아니
호리오외방경상을 비록시러곰보지 못호
나역마는 헤여지고 도로 호소요호매 잡으
라가논이 호소이 에나고 녀염파호을은 무
섭고 두려호며 호사람이 가도이면 호집이
슬허울고 호모을이 일이 이시면 호고을이
두려움즈기 미곳니 세의 반드시그려호배

라이새예또후탐지함미묘에두로나고
적발함느거시돌히말함느디미츨주크게
나라본뜻이아니라후두리건대인심이파
탕함야정함배업스리니역적다스리느디
유익함미업고도로혀그의심함고두려함
논뜻을더을거시니이러모로낸역의근
원을다의논함고인함야진정코평안과져
함느지극함뜻을퍼노니슬프다너대쇼신
공은반드시앗가일크른바키유함야알낼
도리와참작함야접어볼싱각을각각스스

ㄹ음

十五

로삭여츠며드토아서로힘쓰고기다드마
므드지아닌전에기르치고임의범함후에
헤아려비록제방으로함여곰프러지지아너
게함나함정으로함여곰후너르게마라츠
라리법아닌거슬임을지언정오직다새롭
기를힘쓰고방빅된쟈도또함맛당이넌이
덕의를베퍼더러인풍속을변함기를괴약
함야비루져근도적파쇠잔함여얼이스스
로드러나논재이실지라도만일판계심히
뵈함고호함에가히근심될재아너어드모

룸죽이 일마다 올녀들니 지말고 본영으로
셔그경등을 썩라 후니 르고 후다 스려 안흐
로브터 밝기 미쳐 혼글 ㄹ치다 진정흐고 평
안키로 웃음을 삼아 배나의 괴로운 마음
몸바드며 배나의 은혜의 덕을 도와 날노
흐여곰 그말만 잇고 그실이 업스며 그뜻이
잇고 그효험이 업게 말지어 다 슬프다 님어
흐연지 여섯히 에다 스리논 교해셔 지못흐
야어진더 음논쟈논듯지 못흐고 죄에 걸니
논쟈논날노만 하옥을 뷔오논 교화논브라

룸음

十六

지못흐고 흐갓수레에 느려 올을 번거게
니 수레에 느려 우단 말은 하우
시 죄인을 보시고 울으시라 내이에 거들
붓고 리고 탄식흐노라 만일 특상의 죄를
이 다스리고 와 굴의 곱초인싸 흘쳐 새쳐난
의근본으로 흐여곰 쓴허지고 빅성의 뜻을
정흐게 흐논거시 또 흐흐도리라이름음지
아니 흠은 뜻의 진실노 잇논 배이시니 인방
의 초셔난 후에 모든 의논을 막지 못흐야 비
룩마지 못흐야 잡아와 시나가 도완지여러
날에 ㄹ참내 친히 못지아니 흐쟈논 또 흐고

초소홀즈음에후마르치스디이셔날노흐
여금듯고져아닌말을듯고참아당치못
홀일을당홀가두려흐스연피라오닐날도
정신해파연능히내미음을혜아리랴고피
슈를몬져나라형벌을베프고남은간년호
니논다아직죽기를감하니술프다이제이
쳐분을모든의논이반드시버너모너르다
흐려니와다만내본뜻이전의니른바와
틀썬이아니라이큰경스날을만나맛당이
비샤.현.혜.틱.이.이.실.지.라.그.린.고.로.월.초.소

문음

十七

결홀썬예비루우안에잇는취라도호호만
히황.탕.호.은.틱.을.베.퍼.시.니.엇.지.홀.노.이.무
리의게그러치아니호리오죄잇는쟈는은
혜를싱.강.호.야.뜻.을.고.치.고.죄.업.는.쟈.는.의
심을프러미.음을.평.안.히.호.야.다.새.교.화.에
드러이경스깃부물흐가지로홀죽다만저
히다.호.홀.썬.이.아.니.라.곳.나.라.헤.다.호.호.미
라.그.린.고.로.이.에.닐.너.되.니.다.모.름.죽.이.듯
고.알.지.어.다

유경기흥충도감소슈령드름음

왕이이러트시그르샤디전년기를경귀와호
셰크게흥년이이시므로브터내결을흥야
쉬지못하연지이미히지났는지라져뷔라
잡스오실음식장만하는사름이라
셰로슈라를나오매은
득함함거동이라하는빅성을싱각하야바
로당죽애בק병에담아두로부옥
간난호라
집이에밋게과져하되가히엇지못할지라
슬프다세بات는덜고환자bat는그쳐시
되덜니이코그치인빅성들은비록솟플고

드름음

一一

집폭는피롭기를연하여시나므슴남은곡
식이이셔능히궁츄에미츠리오또하를며
덜니이지못하고그치이지못하져랴셰전
에멧순이나급흔거슬구하엿는고구하를
본자논후부황
빅성이부어
호빛출면
하러니와구하를보지못하져는엇지계경
클머달나호부르미입슬줄을알너오이제
논소려라봄되연지날포되야진홀하논일이이미시
작하여시니슬프다나의의지할디업고고
할디업손빅성이파연능히굴형에너머지

지아니하고 길노바자니지아니하고야 짐을
편안히먹이기를기드리는가못하는
가진홀의어렵기네가지이시니주리는호
구의허실이속기쉽고곡식품이정하고추
흔거시석기기쉽고말파퇴의적고크미밖
고기쉽고소곰과장이쓰고스거운거시합
하기쉬우니이네가지를그릇하면진홀아
너므로더브러마튼지라고로곡식품은호
죽몸소되느거슬보고죽을먹인죽몸소스
스로마슬맛보미벧법이우연함이아니라

문음

一一

내소드르니쇼민이혹품골기를일삼고후
나모하기를일삼아히못도투브즈런이슈
고하야도곡식으로가히살셀이업슨쟈는
진실노불쌍히너길배니절노먹이느디들
너니와지어전함잇는도관파밋유전쓰선
비논그일홀을붓그러이겨주리물참고
원치아니하며소그중냥반부녀의궁박하
고홀노된재임의브르지져발컬하기어렵
고소중도업서스스로알게홀길업서마
니안저싸지니이러듯한샤름은원들이몸

소모을로든니며극진이참고물어베퍼반
 포항고알게닐러적어내어는화먹게하야
 훈사름도곳을일똘이업게홀지어다훈년
 에진홀함이네로부러엇지니로혜게만호
 리오마는반드시익쥐예한과송썩한과란
 청쥐예부란송썩부필이를일기름은그훈낫
 정성이빈성의뜻에세여소못촌연피라헌
 파원황제헌기의사기빈이란의술에신통하고
 공황원공슈와황패는한썩의다소리기잘흠
 이또훈이정성이실썩름이라네일에도고


 룬음

三

집지말고상례에도거리세지말고내정성이
 을극진이하야일을하야가한파부로하야
 금송나라헤만아름다움을훈자하게말라
 두도진홀홀꼭식은임의하야금구획하야
 시니판가창을열어나라빈성을진홀하야매
 별반길거하기를일삼을써시업슬듯하되
 내소복즉위하사훈후로부러물잇니슈스
 쓰이느디속하거슬일절이싱감하야그응
 입하하거스로베별로하고에싸하시니내
 그지물을스스로이하려함이아나라대개

내벽성의장막와스름과홍년들면쓰이기
를위함이라별로는턱을베품이항을며국
도에테일이이시니이제경귀예돈후천냥
과호초이벽근을느리우고홍충도에돈소
천냥과호초일벽근을느리우느니경이그
공경하야밧아침착하야혜아려설진하느
모든고을에고로로본벽하야빠그부족하
디를동계하라슬프다슬을물에부으면물
이엇지마시이시리오만는 빛창슈가술은
적고군소난만
흐너너로각각먹이지못하여
강물에타고로로먹이니라 서로감격하

류음

四

여하난바스름음이라이거시비록대단하
지못하나또하나의슈라를님하면부옥을
싱각하느지구호뜻을거의알시라구중 결매
이란말 이멀고김허능히몸소슬피지못하
니밧는밧자느방벽파다밧슈령이라하사
름을생고호곡식을느흔제마다내가님하
야보느드시하야낮과밤엘동동하야게어
르지말고범흔하지말아나의궁박하벽성
을살라버큰공을알월지어다부즈런하면
상이잇고만흔하면별이이실거시내내잇

지날으기를만히흐리오비루지차와후초
 실흔교을이라도공춘에민경이싱각하니
 반등시먹기어려울거시니물잇그어르문
 지는도리또흐엇지우심흔곳이에셔다르
 리오내보야흐로대컬에셔지속하고공경
 하야 샤직에나아와올상신일 정월첫신
 로버몸소싱폐 제물과폐를나오고이에
 향소 샤직단제사치에셔버열줄 문음이란
내음은곳이라 글을베프니니곳빅성을위하연풍년을비
 는뜻이로라

문음

五

건룡스십팔년정월초구일신탁

유경상도판찰소금진음수령문음

왕의이러트시마르샤되령남식시 능서란 말이라 지

작년 고력책란 말이라 에크게흥년들고전년에또

흥년드니전년흥년이형귀와호셔에비흥

면비록적이났다니르나이의지작년큰흥

년후를니어신즉바루초실파지초고음이

라도이궁츄을당하야빅성의먹을거시반

드시어려우려드흥물며우심은고을일싸

시브냐우심흥고을노르면다만경귀와

호셔의셔났지못흥썬의아니라두리건대

문음

도로혀고도못흥거시니그병과뤼진흥연

지 병은져근고르시오루는큰고르시란말이라 의오라고주리

고곤흥기절박흥미점점심흥연피라구실

을더러주고환자밧기를그치라흥은도가

의셔싱각하야돌보논밧재또흥지극흥지

라아지못흥니니실은혜파연밧지못흥탄

식이업논가그러치아니흥가즉금진흥흥

논일이이의비로서시니또아지못흥니

연러고을의베퍼흥논일이파연엇더흥요

귀민생기가정흥고먹이논곡식이실은과

분표하기가 새를 밧고되와말이 흠축이업
는가령남이 넷집과 스부의결네만하평시
엘도또호간난호야곰기를들게녀기거든
이런흉년에엇지버스스로살니오만일후
스싱이비록크나념치듯호야참아판부에
비지못호야스스로그구렁에업더지기에
닐원주그불상호고공축호기쇼민이에서
심호나이러호류를또호과연타자싸먹여
구호는가집에남은곡식이이셔모을에는
화밧기는전실노이후호고축호풍속이어

문
문

二

니와년호야흥틴든뫼해부자도또호간난
호야형세노말 큰활이라도살진호곳은
힘이업스니부자라도어렵
이단말고트야손을늘닐일이업는디판장되
엇는재권분이라핑계호고협박호야호여
곰곡물을판출호라호야후박파가산을파
라싱업을평안치아니케호면은혜는누루
밧지못호고해는이의편벽도이밧는니이
런일을또호과연즈셰히삼가그르미업는
가내일노버근심과념네모음에이셔호싸
도플나이지아녀후밤을당호면먹기를닛

고비루먹어도 등허이후에 느려가지아닌
는듯하니만일가히버내빅성을살늘도리
이시면엇지앗갈거시이시리오니슈스에
히마다드느거슨만치아니코응당쓰이느
거슨심히만하되요사이미이덜고간약하
기를더어적이남져지를두고또나라오세
쓰느피물_가죽부_치을아이에쓰지아니하고
상방_을옷맛조온마_일신하의게나여맛져문셔
하야두기는다물지고기물아흉년되야주
리느디돔게코져하미라그러모로경귀와

㉞ 료음

三

호셔두도에이약간전물을_돈파호초를_주시나라
주어시니만일령남은진홀하느고을이쵸
곰적다하고홀노아니주면특별이호글기
치보느디어그릇츠미이실쑤아나라나의
맛음에결연호미잇느지라본도진홀을것
구획호박기특별히니탕_안호로쓰시느_고일_호음이_라니_돈
이천냥파나라옷하을츠초피일빅장을본
도에느라와보내니형은그도홀쑤로혜아
러진홀하느각고을에느화버진즈를보태
게하고비루응당진홀하일넬네고을이아닐

지라도이박귀만일스스로이진흙하느곳
 이잇거든또흐름즉이등수로선좌노화
 주어교로로는혜에적시들피약하라슬프
 다령남에주리노인귀맛당히만으로베헬
 거시니이거시엇지족히베열을나오식인들
 녀넉하리오마는오히려천니박귀슈운하
 야보내기는다만빅성을불상이녀기는다
 구훈뜻으로나고또원들이거의나의지
 구훈뜻을몸바다적이두려워하고기다들
 기를더으교져호미라경은모름즉이일노


 룬음

四

비어려고을에북이신척하야하여금각각
 정성광힘을다하게하고경도또한맛당히
 여러도리로건져내고모음을다하야얼오
 만져전혀맛진척망을져브리지말지어다
 슬프다령남이호셔에셔더머니오직먼교
 로적조 빅성의 불간조식 의쌍귀고알는거
 시나라헤들니기어렵고원들의봉영호호미
 만흙하가쉬우니나의빅성위하느님네다
 른디에셔더우근절호미또한언연피라몸
 은구중 대철이란 에이시나모음은부우 빅성의

의집에이신주비룩머나갓가음ㄹ튼지라
만일흔뵈성이라도방리느일이이시면그
고을원은반드시등흔죄를더어벌단흔야
죄를누거지아닐지라진홀흔느외에모든
고을도또흔맛당히잘흔고못흔물상고흔
야상파벌을헉홀거시나다모름즉이척념
흔야백성의일에게으르지말지어다슬프
다이하교느진실노곤복_{정성에}음이라_드으로나
시니즈흠다너감소와슈령이엇지몸바다
싱각지아니흔리오인흔야

ㄹ문음

五

전교흔야ㄹ드샤디이느리오느_{문음}문음의
그공경흔야바든후에여러고을에두루베
프러궁춘에민정으로흔여곰힘납어지팅。
흔야편안케흔라이러특시흔되원들이슬
피지아너뵈성이누리흔느재잇고길혜주
려죽은재이시면이런원을어디쓰리오어
츠를묘당이이의싸알외여시니장츠여러
고을을츄싱흔야보벌거시오진홀흔느고
을은또맛당이선전판이나후비변방이나
보내여무시에치탐흔고슬필거시니이뜻

이로써 미리 원들 낚아 먹음 알게 하야 후하
터럭만 한 일이라 드무음을 노치 말게 하라
이간 미리 나르스 텅이니 더우 쳄 남하기를
더하물 경양도 판찰소의 게 하유하라



문답

문

유경귀홍통던나경상원춘함경의과도문음
왕이이러트시글의샤디이날은곳내원주의
첫돌도흔쳐라오덕 하날과

조종이묵우흥시고음즐 묵우와음즐은감안
이도으시단말숨이

라흥샤이에원주의치복을넘고구슬을희

롱흥여배우리

즈년과

즈궁귀즐거움이밤으물보오니이엇디흥노
내흥사름의경시리오곳동토의둘니인어
만싱녕의흥가지로빌고깃버티하흥는배



라활과살을베프미네로조차이스니배남
즈의스방의뜻둔바를빈뜻이니나의원주
의게귀디흥여브라는재다만스방의뜻흥
석름에있지아닌주이날의열줄무음을피
느룬음을드리위여숫도의블상흥니를고
흥흥는정스를베프니이에그처음나오모
로부터배빅성을보전흥고빅성을건지는
법을빔이니오흥다일만히예이도를조차
배나아가면생나모활과박살두가지에비
표흥매그하지아니흥라허블며저준준흥

빅성도또흔뎨성을잡음이이셔목을느리
혀브라고손가락을굽혀헤지아니느니업
서니르디이날은우리남군이즐기시리라
흥리니내이에또가히그뜻을디답흥미업
소리오슬프다구월은곳농소흥느집의마
당을닥느셔라들예기득흥누론구름의뎨
박^{농장기월}흥이^라월이네^덕흥로나와^{농소}흥느노
래와^미을에^술이^즐거^움이^이여^셔즐^거움
이^업것^마느^귀뎨^라병^귀과^삼남^과관^동과^관
북^곳흥^여러^도에^지해^를납^은빅^성이^후배

한^지를^흥고^후배^통지^를흥^고후^배풍^지를
흥^고후^배박^지를^흥고^후배^슈지^를흥^여반
을^일흔^자도^잇고^전혀^일흔^자도^이스^니작
년^은박^곡식^니크^으물^힘납^엇더^니금^년은^노
이^로더^부러^아오^로검^황흥^고작^년은^조은
흥^고전^슈흥^느역^시잇^더니^금년^은가^히움
길^곡식^이업^스며^작년^은세^도의^딘홀^을열
엇^더니^금년^은당^춧그^수의^셔비^나흥^고작
년^은여^러히^풍년^긋출^나엇^더니^금년^은이
에^귀근^이거^포된^지라^슬프^다나^의궁^흥빅

성이 당춧엇지요 뵈호야 쯔싱호리 오골형
과학이 아 니면 당춧년년 백성이 배 고투하엿
더지단말이라

흙애 나르 리니 음식이 목에 느 리지 아 니 타
흙은 오 히려 혈우호 디붓치 리라 이 제 백이
랑의 배유 거 둔 곡 식으로 배 호호 의 응 당 밧
치는 수를 통 호 여 혜 아 리면 신 환 도 결 단 고
판 득 호 여 채 오 기 어 려 든 허 블 며 구 환
의 지 디 응 할 곳 이 업 스 것 가 무 릫 곡 식 디 남 호
라 호 느 녕 이 미 양 지 창 호 후 의 잇 기 병 과 항
이 문 득 기 우 려 뷔 기 에 나 뵈 고 쥬 변 호 야 깃



초 기 는 만 히 그 쉼 일 느 니 이 쯔 호 가 히 미
리 단 념 호 블 더 으 지 아 니 타 못 호 리 니 금 년
다 솟 도 의 구 환 은 초 실 여 부 를 의 논 치 말 고
일 병 정 퇴 호 며 우 심 과 지 츄 의 고 을 파 밧 초
실 호 고 을 의 우 심 호 면 이 며 나 에 환 상 과 군
향 을 각 양 곡 식 으 로 배 힘 을 쉼 와 길 거 호 야
편 호 기 를 조 차 디 남 호 들 쯔 을 전 기 호 여 지 위
호 고 녕 남 으 로 나 르 리 는 지 해 를 남 으 미 엿
고 기 밧 호 미 업 지 아 니 호 니 구 환 은 정 퇴 호 고
신 환 은 디 보 호 기 를 다 만 우 심 호 고 을 만 거

행하라 슬프다 아모고음은참경이 되며 아
모고음은초승이 되음은전후농형제본의
또흔거의대강담작은하야시나만일그즈
셔흙을엇고저흙딘대도신의분등장만곳
지못하니분등장문을기드려우심흔여러
꽃은스스로맛당이힘베견면^{구실더만}하
물행하고각별이딘디^{던흙하고환자}물
의논하려니와이제나의효유하야너긋기
를분등의셔문저흙은머개이날을만나깃
봄을괴록하고즐거움을한가지로하자는



뜻으로나오이니경스를넘이하고은혜를
베품이이그비로솜이요우희두어가지일
노베즈못금년모든빅성의소망을식척고
저흙이아나라슬프다여숫도의지해님은
민인들아오직네이시니모름죽이각각밋
어저하하지말나일노베일테로션포하야
닐너히여곰어더안도케하되먼니궁발^{방변}
이^이란^말밭기라도또하나의빅성이요갓가
이요^이던^이안^이히^이라도또하나의빅성이니이제
나의일^이념^이의^이동^이동^이하^이며^이특^이특^이하^이면^이니^이이^이지

아니흐면갓가이이스니네사름의열손가
락이란말이가히능히갓가이가저비유흐
다나르리니만일필부와필부로히여곰쳐
소를일고주리느디병들게흐면나의미음
이평안흐랴아니라슬프다여섯도민성이
바야흐로시느배예실녀심과갓흐매샤공
의척망이방악^삼이^란말과슈령의잇느니
어로만져쁘다드며광안이지접게흐야흐
나히라도편의흐를일흐면다른날도정의
도라와장춧어키안면으로내게보리오방

악과슈령이이에나르러또흐가히배스스
로덕녀홀바를알니나다시엇지만히나르
리오또라도갓흐디도세곡을이제임의뜻
차시니환자밧기전아직목하의최과흐는
근흙이업스려니와괴년의봄대동정되도
를들으매바야흐로금년기을대동전의밧
치기를지축흐다흐니즉금기을일이오히
려마당의오로미더드니비록즐거온히예
이셔도오히려간킵다나르러든허블며이
제又흐히냐도신이즈셔히상찰기를더흐

야 그중우심하고 을과 밋디 초와 초심하고
을에 느우심하면 파니 예아 직발녕치말아
뻬분등을기드려편의기를헤아려구쳐할
뜻을성화깃치분부하야흔빅성으로도히
여곰수고흔소리나라흔들여경소를흔가
지로하느날에짓게말지어다인하야

년월이 른음을묘당

비국어
말이라

으로하야곰여

러본을벗겨내여성화깃치각히도의느리
위보내여인하야별판으로뻬도빅쳐의엄
칙하야방곡의씨쳐닐너일부와일부로히
여곰나라히이날을만나빅성으로더부러
경소를흔가지로하느뜻을알게하라
건룡소십팔년구월초칠일

유경귀민인류음

왕이이러트시골으샤디내원량초도일

원조 성신

이란말 이라에경소를빗내고깃브기를표하는

거스로버몬져두어벌견홀 구실을덜고민정을고홀한

말삼 이라 하는정소를형하고인하야여러도에

정면 환상을바기를그치고구실 바기 를 더 단 말삼이라 홀뜻을퇴여

시니저대쇼민인들이거의내모임에장춧

기드리는일이이실줄을알아실지라오늘

날은꽃나의성도 탄일이란 말삼이라 라번근 감소와

말삼 이라 과목 빅 란 말삼이라 들이대되다전

류음

一一

문을바드러하례를일각르되오직나의흔

모임에동동하는자나의빅성이보야호

로던히 빅성이비 음 하는 소 리 라 신 하야 불 상 함 이 내

몸에잇는듯하니엇지하례를바드리오이

새예대신이문안함으로버대컬에드러오

고귀빅 경귀감소란 말삼이라 이 순 력 하 던 일 노 버 도

라와 퇴니 분 등 각 음 동 형 으 로 등 수 호 장 계

비루주세하고극진하오직보고압히셔

의논을든든히하야고장령락하기쉬움

만고지못홀뜻하야일병진디 입 시 란 말 하

셋째는 골은 추로

냥반이 좋츠 단말이라 징채 빛 밧 단 말이라

와 밧 각 아문궁방들의 빅성의 게 소요히 구

는 일을 일절히 엄히 막게 함이 오그닐 품재

는 골은 총용령보두고 든 환자를 돈으로 베

디신 밧게 함이 오그여 뉘째는 골은 판셔 발

환자 존중에 대미를 소미로 는 화주고도로

본식으로 밧는 거슬모를 털고 밧게 함이 오

그아 흠재는 골은 광취양근분원식장에사

는 빅성들의 호세대미를 소미로 디봉하게

함이 오그 열재는 골은 장단파쥬풍덕교하

ㄹ음

三

네 고을 대동에 밧소출대미를 전미 이 좁라

라 디봉이게 함이 오그 열하나 재는 골은 강도

에 금위어영두영문속음근향을 돈이로 디

봉하게 함이니 이삿두가지는 전례업는 일

이라 각 각 맛든 신하들이 비록 법으로도 두

는 말숨이 이시나 상례 본 법이란 에 거릿기

지아니하고 또 한그대로 시행하기를 허하

옛노라며 저을 년시키고 로 저손 제 양으로

득 단말 숨이라 말하기를 입어논과 밧치구트여 피치

업서우심음이라도 초실한면파니가 후지

다음우시문은곳이에셔나아군향설밭치는
거슬디봉으로하고신포와신평을정퇴하
게하일이잇고지다음에우심하면파니는
우심하고을레대로시행하게할것으로묘
당^{비국이라}으로셔조세히조소하야각각
도에행회하게하노라일노인하야베플말
이잇노니슬프다빅성이이신후에야나라
히잇고나라히이신후에야환조와군향이
잇는지라이제말하노는재문득글오되환조
بات기는곳쇼민의니년량식을위함이라하

문음

四

누니함을며을흔경고을들이곡취^{곡석}
하문셔를 게요크게진홍을기를지내엇기
에곳곳마다효연^{곡석이업서}
일음이라 보야흐로잇는쉬가만타하노디도천석에
넘지못하고적은디는겨요수삼빅석은하
니이제한조를밭지아니하면전두에엇지
순을별디환조를노화주리오하니이날이
소견이업스줄이아니로되나노배하되고
러치아니하다오노압접제^{빅성을건져}
단말숨이라 할도리는진실노맛당히싱각할일이로되

보느압해퇴박 환 조 맛 노 라 빅 성 들 을 몽 동
_라말이 하 는 거 동 을 참 아 팔 시 치 못 하 야 을 환
 주정퇴_하는 일판은 이에 마지 못_하야 모든
 의논을베치고션피 미 라 단 하 야 령 을 베
 프노니우삼_하고을파밋지_하고을의우심
_하면니_는삼분일을덜고지_하고을지_하면
 니와초실_하고을우심_하면니_는소분일을
 덜고지_하고을초실_하면니와초실_하고을
 지_하면니_는오분일을덜고초실_하고을초
 실_하면니_는두분일을덜게_하노니오직이

문음

五

정면_하라_하음_는하피은혜라니를거시아
 이라다만적이빅성의힘을누기고조금빅
 성의머글거슬덕덕_하파져_하힘이로라슬
 프다나의대소민인들은이열줄_하음을베
 퍼니르_는말을몸받고구중 케 철 이 란 에 는
 씹을슬피옴 빅 성 의 근 심 하 는 얼 클 을 성 각
_하야슬피옴시_단말_심이라
 시_는뜻을싱각_하야모름_즉이_각각_사는_싸
_하편안_하고그_성업_하는_일을_진정_하야
 후_또나의_쇼한_에싱_각 밤 과 나 즈 로 빅 성 을
_님녀_하음_시단_말심
 리_을더_으게_말뜻_{으로}또_하글_노배_퍼회

홍교인홍야각각그장니 고을라원로홍여금

그방곡에붉게니르게홍노니 홍충파냥호전

되와동부 원춘파함은민정이다름이업고

귀전 경의도고로로베프고져아니미아니

로되아직년분장계를기드려맛당히조쳐

홍싸이실거시니몬져이뜻으로벼일체로

홍충파전나와원춘파함경등도감스쳐에

분부하라



유호남민인드름음

왕이 이르투시골이 샅되스흙다너희호남민
인들은나의모음을펴셔너르느말을뵈이
드르라사름이미이얍흔디이시면반드시
부모를브르느니비록부모의주식사랑하
는모음으로도주식의알는디를엇지능히
히여금병이백몸의업게하리오만은오히
려또호부르지지기는그덤두드려기르고
쥐주어먹여사랑하야그살과져하기가지
극히근절하고지극히정근흔정이이실새

드름음

—

라슬프다오늘날호남백성의날보기를부
모치홀거시오계경_{비판하부르지}의급
항기병얍하브르지지기_{지는소리라}를썩이아니어
늘내능히보기를주식기치못하야흥년된
거슨하늘타슬하고류리하느거슨년스타
슬하야막연히응하느일업서그설위하
느거슬브려두면그가히부모의척망을극
진이하다나르랴나르느재하되전년은세
되가흥년이오을흔여스되가흥년이니만
코적기가니도히달르니그은혜가온전치

못흐기가맛당흐다흐되그르다이어인말
 고세도빅성도나_{의적지}라부외_{지식}의
 솟도빅성도_또흐나_{의적지}라부외_{지식}의
 게엇지만코적기로배더_{흐며}덜_{흐리}오슬
 프다_이호남은_곳조가_나라_히란_의근본_싸
 히나한에_는풍_패던_나라_니러_나고_하에
 는_형양_고을_일흠_{이라}고_트야_군국_에쓰_는
 것_과공_수에_드는_거시_전혀_이호_도에_밋
 니_를잇_나의_민셔_말숨_이라_들이_다만_조와
 밧_을장_만호_고삼_과실_을몬_드라_그바_치는

문음

二

거_손준_되튼_대와_살세_고오_그담_은거_스활_유
활파유 오_구혁_의니_란말_숨이_라를_다호_고
지라 어_염금_바이_다란_말숨_이와_소의_나는_거슬_거두_어
 못_흐로_는수_뢰에_잇고_들노_는비_예시_러버
 나_라해_바쳐_효성_잇는_지식_이힘_을다_호야
 어_버이_공양_호기_마치_호니_비록_풍년_이라
 도_저브_저브_호야_슈고_호고_또호_관호_려든
 호_를며_춤후_호흥_년때_를당_호야_구실_을더
 지_아니_호고_환양_을정_되차_아니_호야_몽동
 이_로치_드시_호고_칼노_삭드_시호_기를_마지

아니 헛면이었디 심유을 렘통어 솔의 어 히

고 동고 어린 양이 썸어 시라 헛는 비유로 닐의 니 못

를 내라 함과 다르 리오 내어 극 즉위 헛음 시

함으로 부터 벼음으로 본되 가년 헛야 참 흥

은 면 헛였 기에 환상 파신 포 몸구 실인 란 클

규식 대로 준수 히바 다이 썸지 헛번 은 혜

미츠 미업 섯더 니 비로 소그 력 기이 만 결 지

분표 헛거 시잇 고 썸전 년에 구포 를 덜고 증

털 미를 감 헛야 준 거 죄이 시나 다 능 히 나의

썸에 차고 빅 성의 비라 는 대로 못 헛야 시 니

㉮ 른음

三一

이 거 시 나의 벼 블 상 헛야 상 홀 썸 헛야 븐 득

남으로 도라 보 기를 브 즈 런이 헛던 배라 슬

프다 이 히 흥 턴은 근 니에 업 슨 배라 후 한 지

오 후 슈 적 오 후 풍 지 오 후 박 지 헛야 어 러 도

가 서로 가 람 알 외 야 거의 슈 음 헛 결을 이 업

는 디 본 도 는 이 네 가 지 지 앙 을 렘 헛 니 망 양

도 신 삼 이 라 장 계 를 보 매 밤 이 라 도 니 러

나 회 황 음 시 단 말 숨 이 라 헛 는 니 대 저 놓

식 가 연 히 가 그 릇 되 면 야 음 이 나 으 되 을 힌

즉 연 히 와 야 음 이 다 그 릇 되 고 답 꾸 이 그 릇

고더옥듯지못하던바를드르니순력^의암순^의라력이길헤브르지지는소리와가난함^의모을에황금^의야하는형상이완연하나의눈앞헤잇는듯하니내착함지못함^의인함^의야이러함지앙이잇게하니내가밀쳐굴형^의에너흔듯함지라더옥구연함기근절함^의야져새거월초월일륜음에분등함^의물기^의드려조쳐할배이심으로버임의내너희게말씀을베퍼시니너희도싱각건대또함드러아라실지라슬프다내빅성을죽식쳐로보아멀고

륜음

五一

갓가온드업스니버귀전에^{경귀란말}베픈바를호남에베프지아니미가함^라라함^말며이처음으로두는혜비로소나의본뜻에함함즉비루혹귀전에셔파함^의게함^의여도엇지고로지아니타나리오도신이장계함^의야청함^의재추노^{냥반의드라난와징책}바^{찾단말이라와징책}바^빛이라^말의금함기와죄인의비소정치마라지라함^의는청^의뿐이아니라혜아리니대범아함가지니곧은을환양파군함을분수함^의야정퇴함^의자함^의이오곧은보공미를너^의된^의땀^의추

흐흐흐고분수흐야정퇴흐자흙이오글온각
양군보미를돈으로디봉흐자흙이오글온
우심음에훈국보포를전엔임의디전으로
흐자흐외에다히여금디전으로흐고지태
고을이상으로민원더로돈으로나무명으
로나밭자흙이오글온결전을명년십월흐
흐야차퇴흐자흙이오글온패선증널미를
정퇴흐자흙이오글온네산성성향을본음
으로바다두자흙이오글온연히음살색를
권도로감흐자흙이오글온산군에화전결

문음

六

슈흐곳을종실흐야슈셰흐자흙이라슬포
다청흐바여러가지가결실치아닌주리아
니로되날노써보건댄진실노극진치못흙
이이시녀흥턴에빅성고홀흐기를맛당히
블벗는거슬구흐머믈에싸진거슬건지키
기치흐야니마를테고마리를그을니기를
결을음야도라보지못흐고몸을적시고발
을더러이기를결을흐야남녀치못흙기치
홀써시나그리흐야도오히려부우빅성의
집이라
에설위흐는거슬오히려쇼정에들니지못

함물민망함야함려드드이러함전에임스함
틴을만나이러함순례로더는은혜를함함
면나의모음이편안함야아니랴싱각함니
네우리

영고겨오셔일줍나쇼즈의게 하교함오신
일이겨오시니이러트시골으샤되진실노
빅성의게너함량이면슬헌들엇지앗기리
오함오시니이논곳우리

성조의하교입시라나쇼지껏헤되시와바다
듯조와모음속에삭여잇습논지라슬프다

㊦ 른음

七一

빅성이이신후에나라히이시니엇지경용
나라해히마다법대
로쓰음논거시라 인들돌보며빅성이이

신후에군식이시니엇지군진 군문에군시
막이논거시
라들돌보리오경용파군조도오히려또함

이러함거든함물며니슈시며궁가전상가
이밭귀회보 빅성을스랑함야보
전함단말숨이라 흘도리에

유익함이이실진덴턴구상스 넉스복어승
매란말숨이
라를내야주어도오히려가함거든함블며

공귀 제쥬진
상매라 며양탑 각음분
양매라 이석녀대포상

공 슈라산상해드리
음논공상이라 을덜기도또함어렵지

아니거든함몰며들마다바치느물선이며
방물^{외방셔바치음}은소산이라이셔녀빅성의형세
야흐로빅척간투에위티하여시니약지에
죽턱을엇지의논하리오위나의배거포청
함말을기드리지아니하고특별히미쳐
못하여러조건을버품이라올환양과군향
분수하야정퇴홀일은우심음외에지태와
초실음은면니에다만우심만거론하고지
태에밋지아니함은엇지오방빅이^{감소란비}
룩감히내게청치못하나나의뜻은반드시

ㄱ
문음

八一

두로맛파져하노니우심음에우심면니는
절반을정퇴하고우심음의지태면니와지
태음의우심면니는삼분일을정퇴하고우
심음의초실면니와지태음의지태면니와
초실음의우심면니는소분일을정퇴하고
지태음의초실면니와초실음의지태면니
는오분일을정퇴하고초실음의초실면니
는과분일을정퇴하고보공파미포일은니
년익추로를니기가귀약이너모박보고너
슈소노비는닐은지아니키노말이후소략

호가 여러 가지 슈용 나라에 온 것 흘거슬
일체로 멍초와 말게 흘지니 음시논기시라 슈소공은 맛
당이 몬져 흘배오영문과야 문에 보미와가
포와니노와시노의공흐는미포를우심음
은절반을정퇴호고자츠음의우심면니는
삼분일을정퇴호고지츠음의지츠면니와
초실음의우심면니는소분일을정퇴호야
니트츄성후시지호호야정퇴호되임의정
퇴호것외에는맛당히바칠썰을서말디에
돈호냥으로되봉호게호고훈국포보임의

ㄹ류음

九

정퇴호것외에는우삼음원고을과미지츠
고을우심호면니는다순전으로호고지츠
음지츠면니이상으로초실음초실면니에
니르히또호호여금민원대로전이나목이
나바치게호고산군에화전으란종실호야
슈세호일은다만공방을니르고군문과야
문에미지아니키는엇지오화전잇는곳에
우심음원고을과미지츠음우심면니는각
공방양군문각야문들의논말고일병본판
이로호여금담함호야짐수를잡게호니

이를인연하야 생각하니 전쥬상판파양냥
두면에잇는바니스 밧일빅속십팔결을히
조복스 호조복계란 말삼이라 에는비루니스에분명
히문권이이시므로벼막아헝치못헝게
여시나민정이지극히절박하야방빅이베
퍼알외여시니엇지문권의잇고업기를의
논하며엇지싸히잇고업기에거리세리오
일이나의빅성의게판계하야시니정세 세전
란말삼이라 도가히덜녀든하물며니스의슈용
홀거시싸 녀니스의천금을더는거시곳편

ㄹ류음

十一

빙 촌빅성이란 말삼이라 빅집의세간이라아래를유
익하게하느정시정히이런곳에의시니다
결수대로빅성을내여주메하고결전물녀
밧기느결전이 비록실결노셔날지라도만
일가히빅성의손발을누길양이면엇지구
특여십월노벼하을하리오다시하을누기
기를허하느니물녀세전으로배헝게하교
연히음증미정퇴하기와네곳산성성향밧
기느다장계예청하대로쫓노라또하싱각
하니땀를공하느스음에페되오미심히크

고도대나느거시또흔한지해를니밧고버
혀시러다가바치기에슈득 못과바다호로
실어올니단말
라 숨이이다곤흔뵈니비록용비 군문과계를
니르미라
에관계하나엇지혹어려이녀기리오흔들
며드르니형대죽이밧해봉흔흔밧해징식흔
흔회되가만단이나흔고밧고을노셔영논
으로하고시러경수에니르기에허다흔부
질업슨허비가다빅성의게셔나니빅성이
브야호로주리고곤하니엇지남은힘이이
시리오임의형하고형치아니물의논치말

문음

十一

고우흐르니의원들마다밧는형대죽파니
공방어응 나라히쓰음
시는거시라 호옴시논살대와아
래로경외영문파아문에밧치는살대와그
남아괴쇄창조로들여러가지대와남글오
논들노부터니년년지니르히다털게하라
지상 제앙으로
단말숨이 흥턴 이이심을드르므로부
터내브야호로일석 조석이란
말숨이라 에초소 성과
이특
을우짓논도리에혹조금도범흔이못하야
거쳐를너른집에아니하고음식을상해수

에셔감호호노니호를며공헌 진상이란에쓰
기에급지아니호거스더우맛당히존절호
새라세명일 동지정요란일에드리노바방
물을을동지로부터니턴기을식지호호야
일병다정면호게호노라물선과삭선중영
주인의응당바치노를종은말고빅성의게
밧는거스도신이침착호야혜아려구별호
여일례로정면호게호되고두고감호는거
슬쇼령호야배장문호되

주던과

문음

十一

주공에드리옵는바는전파기치봉진호게호
라제취공마을나을적길히당세도우심음
으로말의암니니븐공마의박팔십팔필
은일년을호호야전수히정퇴호게호고분
양마바다가고바다오느디미비호는거슬
맛당히념녀호호지니우심음분양마를당삭
에기드려갓가온목장으로보내엇다가기
을을기드려바다오게호라슬프다이제이
더러주는거시엇지은혜를버픈다나르리
오그빅성의힘을누기고빅성의먹을거슬

너너히하도도리에혹만분지일이나도으
미이실년가입슬년가내뚝에스스로보기
가감연하야하노니유스_{각각일맛든}신_{하들이라}호신
하들은경용파군소가부족다니르지말고
또호진상이덜니고환향이축하고공마가
업스므로버번거히내게들니지말지어다
나논다만백성이논줄만아노라슬쁘다너
호남백성들이조금구실을입의던디엇개
를쉬웠거니와장춧시방바칠기세힘을다
홀거시니마로업스블탁_{씩일}흙_이을엇지장

문음

十三

만호리오그능히병잉_{고고저근}에호되와
호샤를다우희여내고뵈틀과도토마리에
호자와호치를다손허일즉이미쳐판가에
바치고매맛기를능히면호는가못호는가
싱각이이에미츠매내무음이신줄을씩맛
지못호노라_장의지업고_장공근호뉴
논세말에구급호기는아지못게라도빅이
이의혜아리미잇는가년봄인즉스스도
가히전네머로진홀을버플지라도니꼭물
을십만석을호하야진조를돕기를허호노

너비룩이수에셔너를지라도또호호엇지앗
가리오전년세도에임의니탕 컬너곳에돈
집이라
파호쇼로버는화주어진즈를보티여인호
야별노호순을터먹이기를허호야시니이
제호남에엇지후달니호리오다만드르니
살갑시를나풀고사기가심히어려올지니
정면호바방을파물션파삭션가미를특별
이허호야진즈를참보호게호고그외예어
갑쥬 나라남조오시난
갑옷과투귀라 세별호호야가미를
또호일체로참보호야주게호노니이거시

류음

十四

나의음식파오슬기초진아니호고노화나
의빅성을주노는뜻이니물이비룩대단치아
니호나뜻인즉진실노근절호니슬프다및
노밭자는방빅과슈지 원들라 슈지능히회
보치못호면슈지를죄줄거시오방빅이능
히규찰치못호면방빅을죄줄지니내게스
스로슈옷남은신해이시니너희를어르문
지고너희를사랑호는이와너희를팔시호
고너희를끈호게호는형상을내맛당히알
지라부즈런호면각별호상을베플거시오

테어 유원출도팅동녕셔대소스민류음

왕이이러트시그르샤뒤슬프다너희판동민
인들은뵈이내니르르말을드르라네사름
이그린니물에글을배곧오되가히빅성의
로항여금이빗치잇게못항리라항니빅성
이느를빗치이심은나라님금의붓그러온
일이라이제너희아흡고을빅성이다만벼
와기장과공과조의흉년들뿐이아나라훈
비가쿠히즈자네년들이씨스듯항야박도
가히살거시업고먹을셋도가히들써시업

류음

一

서이에저본이느그지어미와조식을잇을
고안고흐터져다른티로가고늙고여원이
논다장춧쿨형에며이일형셰이시니슬프
다판동은척박항벼히라전야 들이라 말의
너름파인들의만기가호령 전나경상두되
의항근고을보다가도도로혀밋지못항고
점항야경계를니정치못항고바다에셰가
이셔히마다항는셰가절강차셰에셔만코
들마다바치느거시형쥬구슬이에셔더항
야작치 확전을니류상에 하단말삼이라 를항기로혀혀시

사는 비성이 바히적고 삼을 삼아 상시 구실
을 디라 함이니 이는 동녘 비성의 끈고 함고 간
난 함이다 른 도에 옷 씬이라 너 비록 기입히 구
중 매 결이란 이 시나 모양 동을 도라 보는
근심을 마지 아니 함야 약을 먹음에 인심이
삭을 보 면 나의 동녘 비성을 생각 함고 반찬
뒤 함야 성 선을 보 면 나의 동녘 비성을 생각
함야 동녘 비성의 섭고 피로움을 못 고져 함
야 여러 번 어 소를 보내야 위로 함야 너 르고
동녘 비성의 고편을 소복고져 함야 모양 감

문음

二一

소의게 신척 함되 폐고 치는은 혜 비성의게
밋지 못 함니 비성이 터 퇴 남지 못 함은 진실
노나 함 사름이 능히 사랑 함고 무홀 함은 척
망을 극진히 못 함연 피라 동동 잠 산도 벗지
못 함 단 말 솜
라 함은 생각 이엇지 일주 경국인 들 믿음에
니 치이 리 오 슬프다 아 흠고 을 비성 호쉬이
만 여 호에 느 리지 아니 함는 디 밤 짓는 디가
멧 회며 인 귀가 십 만 여 구에 느 리지 아니 함
는 디 죽 먹는 재 멧 사름이 나 함 노외 헤 가 나
모 함야 능히 여러 날 꿈은 기 슬 구 함고 바다

해갈어치호야능히여러새양식을장만호
느냐또호물며아침이맛도룩면화를싸도
광주리에추지아니코긴밤에뵈를싸도두
어자흠손치못호니비록겁질만벗긴밥이
이시나그어버이를먹이노라호니그조식
은어더먹이지못호고바루헌거슬기온오
시이시나그지아바를넘히노라호니그계
집은어터잡지못호를거시오어린아희들이
아닌거시업서주리기를울고치온거슬부
르지지논고광경을내싱각호면스스로추

㉞ 료음

三一

연호야눈물이옳기세저증을쉬듯지못호
니모양밤마다어탐을돌너돈너거의붉기
에니르니슬프다나의동북벽성들은이를
아닌다모로논다슬프다을흥년은네업스
배라겨유괴호 경괴와충경과전
나되란말숨이라 에전세를
털고판팅 합경과경상도
란말숨이라 환향을감호야장
계간서로가며올니고료음이니어느려내
가오슬밤드도룩넘고너가슈라를늦게야
먹언지의제두어돌이되었는지라여소도
벗만이나호싱팅 벽성이란
말숨이라 의날마다나의

무음가는대오락가락아닐세업스니져즈
음씩니른바열손가락이라흔비유가나의
무음속을니르미라슬프다져아흠고음은
감스의곡식기청음은장계로보아도더욱그
날노심은홀을아니비컨대들파블에장초
트고빠지느듯음야날을아비로알고나를
어미로아라머리른느러울고브르지지는
디쇼금이나건지고구호기를범홀이음면
내가밀쳐드리치^{쿨형에드리치}기와다르미
업스니엇지참아져적음투어가지일을덜고

ㄱ 른음

四

면음으로버일을다음엇노라음야셔셔고
죽는양을보리오녕셔편은비루병동편보
다가는쇼금다르미이시나다이나의적지
라엇지족히계교음리오음물며내어극워
^{음시판}말숨이라^한연지닐곰히예일죽음가지은
해도동턱백성에미촌일이업고산턱엔니
가갈진음야광주리에녀히박치는거시서
로니엇고비들파북이뷔여자만음것파치
만음것도남기지아니음야근니예진홀음
는정스는블과전테뿐이라네상해스스로

검연호야호더니호를며전에도업스큰흥
년을만나엇지전에업스큰은혜를앗기리
으스름프다너희판동빅성들아거의북이내
말을드르라울기을아흠교을이야엇지면
니에분드을의논항리오기보병포전과군
보와잡식보의쌀과뵈와돈과노공의쌀과
뵈와비역가의각항모든상납이제신역에
셔나느거스팅동은전수탕감호고팅셔는
지차음우심면니는절반탕감호고대동쌀
과뵈의뵈해셔나느거스팅동은전수탕감

문음

五

호고팅셔지차음우심면니는삼분일을탕
감호고어염선세의바다해셔나느거스팅
동은전에임의전수정.퇴호여시되다시호
여금호명년정.퇴호고팅셔선세는절반을
정.퇴호고니의원에바치는인숨은명년쇼
를일병탕감호고중관가로셔상정.호원
가로주는거스각각고을에주어머물너버
진홀과환상에보태고팅셔지차음우심면
니는스분일을탕감호고당년쇼신환상과
군향은.팅동은일병.절반을정.퇴호고중

장황급한곳이아소엇지절반에거리세
리오백성의힘을보아가며침착하야거두
어밧고팅셔는경괴규례대로지다음우심
면니는삼분일이오지다음지다음니와초
실음우심면니는사분일이오지다음초실
면니와초실음지다음니는오분일이오초
실음초실면니는육분일을정퇴하고각궁
방과각궁문과각아문의절슈와둔전잇는
곳은우심음은절반을지감하고지다음은삼
분일을자감하고그남아는돈으로되보은

류음

六

고보미와공미와포는지다음이상임의견
감은차외에아오로민원대로되보은게하고
냥턴삭선과밋세명일 동지경요탄일세방
날이란말숨이라방
음물선중예팅동에셔나는거손을십일월
노브터명턴을은하야정지하고팅셔는명
년기를씨지하하야정지하되팅동가미 상진
이 감찰라는머물너진홀에보태고월파미도일
테로진주에보태되일로인하야또퍼니를
말이이시니팅남이전하는곡식이그쉬몇
만석을물노버하고못으로버하야이제비

야흐로太祖제로동운하니니년봄환상파진
홀은거의절순흥기에느니라치아니흥려
니와전년경귀와호셔와팅남에베프던
은혜를판동에베프지아니미가흥려또나
의탕슈^{결너곳}에별노흥고에싸하둔거슨
정히내빅성의슈한흥년에우호물위함이
라이제를미쳐별노은퇴을더으면적이가
히나의근심을펼이니이제초피갓웃흥벌
파니탕은일천냥파단목오빅근으로버전
즈를보태노라슬프다빅성이주리미업스

훈음

七

면내가교량파고기먹음갓고빅성이치우
미업스면내가갓오슬님음갓고빅성의병
이업스면내가슴출^{인슴과}을먹음기트
야경비^{쓰나}라해^의법^하도^오히려더러주려
든엇지니슈^니탕^에거^시라^쓰을^옴을^아기^리오^군
슈도오히려감흥려든엇지둔전세를도라
보리오이내베조정신하의게의논치아니
흥고특별이열줄훈음을느리오느배라또
싱각흥니진홀에가히경계홀일이네가치
이시니괴민익허실이모로기쉬보곡식의

정취 혼잡 기쉽고 말과 퇴의 적고 크기 밧고
이기쉽고 장파소곰이 밧고 식민서기 기수우
니 곡식은 논호매반드 시검찰호야 되이고
죽을 먹이 매반드 시몬져 맛볼 거시니 의논
전년겨울의 괴호 경귀와 홍
충되라 감소와 슈령의
게신척호야 나른말슴이라 의제본도에다
시이말노버닐너게척호노라 슬프다 쇼민
의의지홀디업스자는 스스로 가히 괴구의
생이여진홀에브칠여니와 지어벼슬호된
사름과 선비의 간난호야 스스로 지내지 못

문음

八

호는 자와냥반부녀의 스스로 퇴지 못홀자
는 집에서 굴머죽은 들뉘알니 이시리오은
혜로불상이녀 귀는 정시더우맛당의 텬녀
홀빼니 너희등은 붓그럽다호지말고 각각
디신을 보내여바드라 슬프다 만일나의 동
북벽성으로 호야곰나물먹는 빗치잇게호
면우호로 감소로브터아래로 슈령에니르
히그범으로버다스려나의 동북벽성을샤
레호리니벽성의 부모된척망은 내게잇고
동성마튼의는 감소와 슈령의게이시니만

민을살온즉상이잇고일인이라도싸진즉
 벌이이시리니너희들은근심치말나너엇
 지말을만히흐리오그러흐나동턱빅성이
 고향을브리기를수이턱아기는다만너희
 들이^{근본잇는}홍산^{세간이라}업슬뿐이아니라조못
 어르문지논도리를일허시미라농소에는
 환상이잇고주리면진홀함이잇고전답에
 논세를더러주는거시잇고몸에는구심을
 더러주미이시니엇지피로이그고향을브
 리리오이제내너희들을구하려흐는모음

○**문음**

九一

이거의져하늘에질정홀거시니너희들이
 우는거슬도로허웃고피로온거슬도로허
 즐기기를내보야흐로발을져기드디여기
 드리노니너희들은모롬즉이나의지극흐
 싯을다아라셔짐을편안이하고농업을힘
 버길이나의동토빅성이되게하라^{전교}

사^고리^로자^사되^임의^의 조^교를^밧조^오니^엇지^지
 감^히장^순치^아니^호리^오조^련과^오니^엇지^지
 에^물선^과삭^선과^방물^을일^테로^정제^호고
 선^슈는^경형^{으로}부^터마^련호^야던^비호^미
 미^리호^여금^알게^하라^니

건룡스십팔년십월이십사일

테어 유함경도남판부관대소스민륜음

왕이이러트시 마르샤디머다부노에사름들

아이판부흔도를도라보니 왕적_{창업} _{유시} _턴

일을니르오 의비릇조오신배오 선침_려

신말숨이_라오 의बाट_드은배니곳우리지_뽕

능_침을니르오 패_한나라_처음_{으로}니_러나_턴샤_일 _흠 _기 _튼

파이니비_하야니르오신말_숨이_라로부

싸히라우리 렬_조오_신말_숨이_라로부

터권련_하야도라보오시고사랑_하야은혜

로_하오시던_정시_문득이싸_해몬_져하_오셔

몸에_는신_역으로_받치_는비_를덜_고전_답에

륜음

는열에셔_하나바_치는_벼를_감하_오셔_지극

흔은혜와두터온_투턱이_하늘_노더_부러_극

하미_업조_오시_니나_파미_나라_히 _검 _소 _로 _하

예미_쳐소_부 _즉 _위 _하 _음 _라 _하 _므 _로 _오 _적 _선

지_렬성_조빅_성의_훈 _하 _음 _시 _턴 _를 _이 _{बाट} _드 _음

고이_닛조와_낫파_밤에_흔싱_각이_상히_부으

로도_라보_물보_즐언이_하노_니슬_프다_너부

노_빅성_들은_거의_내 _뜻 _을 _알 _고 _내 _미 _음 _을 _혜

아리_나냐_매져_본되_가셔_울노_셔여_러천_니

가_남고_싸히_냥 _췌 _르 _오 _신 _말 _숨 _이 _라 _디 _경 _에

다하고하늘이다스재의힘을베퍼고건
장호사나희는삭방중원에부방에비하고
조호물은근과부공원조호물라파라트여빅성
이질실하고풍속이돈후호물송상하야길
가는재양식을쓰지아니하고동년에셔곡
식을느호는일이이시되다만그싸히본디
척박하고싱니스스로간난하야임의삼남
충청전나의벼와소음의조음이업고또양
경상되라의벼와소음의조음이업고또양
셔안되라의벼와소음의조음이업고또양
그곡식인즉기장파조와콩과보리가흥년

류음

二

이것고풍년이적으며그소산인즉드리와
비와농용과인삼이나는적고해는만하조
개나라히란비루사랑하기에브즈런하나
원들이어르문지기에그릇호는일이만하
버전후에진렘하고무홀호는배진실노이
러호물물의아므미라호물며올히가장매
지앙이되야너름으로부터가을에너르히
두어날도벗나물보지못하고협으로부터
들에미스도루호의삭도거두미드므러건싸
흔간간히누른빛치이시나썩물드느싸흔

거의프른거시업서전박 능이 일을기초지

못하고담석 곡식에남을거시업서심

하야도토리도다그릇되고는물서지못되

야광주리를잇글어지고기야도오히려주

림을근심하고전련 거동이랑 지는형상이

조석에보전치못할듯하야수십만이나호

성령 백성이 말이언마나다죽기에니르지

아니리오슬프다오직내가턱되지못하야

정성이하늘에니르지못하야하늘이지양

을느리와시니엇지그러하게호미업소리

문음

三

오허물이진실노내게이시니백성인즉모

슴죄이시리오슬프다홍년애즈로하야살

기가오직유무를음더장소질하기에잇는

디본된즉냥판의오고가기다만이흔길이

라싸히다른도에셔절원하고시러느르기

가서로즈로하기고장어려워브르지진들

에엇비녀길재누이시며골문들알재누이

시리오골근보오시능히몸을덥히시며배

라기죽이능히입을적시라져쇄병신년용

년에약간진할하느정소를베퍼너희죽기

에 당혹함속을 구하였더니 뒤가 오날날이
 러함용년을 만나 내부 녀벽성으로 하여금
 거듭된 근에 걸닐 줄을 뜻하여 시리오 이제
 여소되가 흥탄을 고향야 거의 슈응하기를
 결을치 못하기에 나르나 모양부 녀벽성을
 생각하면 더욱 잊지 참아 내즈리 오그 건지
 고구 할도리를 또 금도지 완이 못할 거시니
 감진 할스신은 근밀 갓가아득신신 해관말숨이라 노셔내
 여보내고 안절 감서란말 흠신하는 그 성적
전에 감소 잘지 내단 말 숨이라 을 취하여 하여금 무귀하여

문음

四

가셔셔 어르문 지고셔 호진 할라 하노니
 슬프다 내부 녀벽성은 거의 이를 인하여 평
 안하기를 어드라 지어 구실 덜고 진 할 기
 는 더욱 급 할 일이 니 구환 상과 군향은 우심
 지차 초실 읍을 일 병다 정 퇴하고 신환 상과
 군향은 정 퇴하고 신 우심 읍을 우심 샐
 반이 오우심 읍 지차 샐니와 지차 읍 우심 샐
 니는 삼분 일 이 오우심 읍 초실 샐니와 지차
 읍 지차 샐니와 초실 읍 우심 샐니는 삼분 일
 이 오지차 읍 초실 샐니와 초실 읍 지차 샐니

노오분일이오 초실읍 초실샤니 노오분일이
이오 뒤봉향기 노오삼읍은 절반이오 지태
읍은 삼분일이오 초실읍은 소분일을 향되
남북판대 동포 노오삼읍우심샤니 노오절반
이오 지태샤니와 밋지태읍우심샤니 노오삼
분일이오 지태샤니 노오소분일을 향일년경
퇴향고 남북판니 노오비와 궁방 노오비와 시노
비공미와 포전과 잡물과 밋역가와 남판각
읍에 삼슈군포를 일병향일년 탕감향고 남
북판호조에 바치노인 습과 포와 남판에 바

문음

五

다둔비국구판향노오공미와 영문과 각읍
에 월과미와 진향갑두갑퇴를 일병머물너
두어 진흥에 보태고 남판선세전을 배혀주
어 소공을 무역향고 남북판미삭진향향노
삭선과 세명일 동지정교와탄일
세번진향이라 물선과 방
물 고을소산으로진
향향노거시라 은명년 을 씨지향향
야정지향고 본궁별채의 소장히 호에 밋치
노오각등진향을 향향명년 기 을을향향야정
감향고 진흥을 곡식 밋만 석을이 제비야호
로 낙작 다쇼간이라
말삼이라 히구획향야주라향거

니와노비공훈일이기장너희등의고퍼도
니일노버내참악파히쓰지못하고별노니
슈스훈교에빠코일훈하야곧오되보민피
라하니대개우리빅성의슈한흉년을방비
하려호미라다른도에진흙보태기도오히
려탕장^결이^넌곳에거슬내엇거든흥블며돈
파뢰가다너희들의게로셔난거신디너희
가비야흐로굴형에며이이게되야시내
그가히돌보지아니하랴이제돈삼천냥과
포삼백필을너리와버원진흙외에별순에

문음

六

머길거슬하노니오직이은혜엇지족히여
러열고을주리는빅성을구하리오어선^라
반찬이란 말솜이라과어복^란말^의솜^이라^을일^병명^하
야진흙을보태게호미이거시족히버너희
비가브르고너희몸이더우리라니르느줄
이아니라진실노술을물에플매^비사^름이^적고
군스난만키로술을강물에프려^여러^사름^과고^치먹^으니^라사^름이^다취
하^지못^하나^귀하^바느^고막^음이^라또^하
즈^턴과^즈궁^에진^상하^옵느^거스^나의^감
히^천즈^히정^지하^배아^니로^되삼^가즈^지

를 밧조와 일병 정면호노니 슬프다 부녀벽
성들은 이를 아난다 모른다 이 밧 접제 홀
도리느다 시 감진소와 감소의 게 소견대로
장문호라 하여 시니 조 초맛당이 차례로 지
행하려니와 슬프다 진실노 벽성의 게 니 호
량이면 괴빈 몸에 슬이란 들었지 앗기 리오
호오 신하교는 곳우리 선왕이나 소주의
게 마르치오 신말숨이니 믿음에 삭여 감히
잠간 도후만 홀이 못호는 지라 거 번 남 녀 벽
성을 위호야 이 말숨을 외와 시니 엇지 홀노

㉞ 류음

七一

부녀벽성의 게 그러치아 니 리오 슬프다 너
희들이 안거호고 저 홀즉 꼭 식이 기히며 클
거시 업고 류산호고 저 홀즉 싸히 가히도라
갈디 업스니 그 형세 진실노 궁박호고 그 정
경이 진실노 가히 불상호도 다 너희로 호여
금류산호야 가히 살냥이면 내 엇지 너희를
잡으며 너희를 매야 류산 처 말나 호 리오 마
는 즉 금팅동도 흥년이 오 경귀도 흥년이 오
냥호 충청도 전 도 흥년이 니 비류 류산호 들
류산호야 장차 어드러가며 네 간 들 뉘가 밧

을향약너를먹이며뉘가짐을향약너를잇
 게향리오혜아리건대장춧전턴향여표박
 향고류리향약소망에니른후말니니그님
 의따해간모춤내죽기를면치못함므로는
 엇지본싸흔직희여그살기를비람파기트
 리오나라해싸힌거시비룩업스나오히려
 가히진흔을분급향고환상을분비흔리니
 의지흔디업스뉴는진흔에부치고전퇴나
 잇는자논환상을바다약직소춤고견디여
 니춤을지내면하늘이후우리빅성을브리

문음

八

지아니향샤우리를보리풍턴을주시량이
 면주리던재가히비브를거시오병든재가
 히소복흔거시너희들은모롬죽이각각
 쥬셰히싱각향약이두가지
남의싸헤류산
 흠과본토에잇
 가지^두라^에글^희라^이에^눈섭
빅성의근심을
 눈섭스이에솔
 피^단말^을슬^피는^뜻으로^크게^맛음을^펴니
 르^를베^프노^니너^희그^미드^미이^셔저^허향
 지^말고^각별^히정^향약^살기^를도^모향^약배
 나^의밤^과나^제님^혀흥^물위^로케^흔지^어다
 머^다복^노에^사름^들아

조훈현추

전교홍샤 마르샤 뒤홍현에 내뵈성의 함함

거동 호고전련 뉴리 호야업터 지는 호동이라 호는 재귀님금

의정소에 건지고 구홀배아 나리오만은 그중

마장고홀의 업고 기장불상 호재 아희들파어

린거시니 저즈란 거스름의 고평이 되야 물도

기르며 나모도 저오히려가 히즈로 호야살터

니와 아희들어 린거스니와 탈나 몸을 기리우

고 입을 먹을도 리스스로 힘쓸 길 이 업서 울고

브르지 저살기를 비러도 가히 의지 할곳이 업

조훈현추류음

느니 길썩에 내어 브린류에 니르러는 그스이

에므슴연피잇는 줄은 아지 못호거니와 대강

부외업서 이러호디경에 니르러고 비록 부외

이실지라도 주리고 칩기 몸에 큰 절호야 들이

조식과 재 몸과 들 다사라 나지 못호 줄을 헤아

리고 인정을 배히고 사랑호는 믿음을 원허거

리에 내어 보려 벼보는 사름이 불상이 터겨사

로기를 보라미니 만일 착호사름이 이셔곳에

갓다가 기르면 다 호호거니와 그러치 못호야

여러배가 지나면 문득 죄 업시 죽으리니 슬프

다하늘과싸히만물을내느것이엇지호갓이
러호리오할인혜민두마음을두기느곳의약
으로죽느거슬구호려호뜻이라빅성이병이
셔도오히려관원을두어구호려거든호물
며이아희들과어린것들이후든니며벌고후
내여브리느거시병든것보다가더욱긴금호
니광제원과육영샤_{두집알흠이}하_니계_적뉴_걸
마_을이라의아름다온법테느고금이달나일조에
두루헹호기어려오되셔울은팔방의법이되
논곳이니약간넷법을의방호야몬저이리로

조출턴츄류음

二

조차비로서버점초로법밧게호기가실노어
진정수의시작이될지라내거번우연히싱각
호고대신들의게의논호니모든의논이다기
트나이제엇지지란호야의심호리오유수_일
들_관원_라로호여금난만이의논호고궁구호야
맛_당이_헹호_염죽_호일_을절_목을_일위_인호야
죽시중외_란셔_을과_식골_이에두루되야호여금
각각길이준호호게호되풍_흥의법레다르기
와년월의법테를정호기를가히즈세히혜아
려구별호고차등호지아니치못호려시니결

네잇고님자잇는쟈란두루타자맛질도리와
즈식업고종업슨쟈란거두어길너허허야줄
법을또호호즈세호고쿠진호기를힘버호여금
종시히은혜잇게호라

소목

턴디의큰덕이곧온만물을내옵시미라성인
이법밧즈와버어진정수를헿호옵시니니중
용^{척일}호의만물기르느공파희문^{주문왕이}
^{이라}의네빅성을^{홀아비와홀어미와부모업슨}
^{아희와즈식업슨늘근이}라^라문
저호오시던교해또호호어질인뻘를미루어



조호년축소목

三

널니기에지나지아닐씩름이라오직우리
성상이여스도진호호옵는새를당호오셔호
빅성이나곳을일호를념너를싱각호오셔고호
호옵시느은혜임의온나라헤두루호오시고
블상호야호오시느^{싱각이}어린아희들의
게식저밧즈오셔호년^에두루비느아희와길
식^에내여브린류를버죽먹이고버젓먹여다
거두어기르라호오셔특별이^{전교를}느리
오셔중의예두루빅게호오시니아연히즈식
을보전트호오시느^{뜻이}말삼밧기드러나

오시니 은혜밋좁지아닌디업고 투은만
물이길니지아닐거시업소오니화호귀운을
인도호야마자오고아름다운턴명을맛조와
닛스올도리진실노이에잇습느니라응당형
호을절목은 성표를맛조와조세히강화호
야이아래버려쓰노니안호로히형파히부와
밧그로각도와각음에오늘날일맛조온신하
들이누공경호음고올어러찬탄호와정성을
다호야디답지아니호리오어진소문이밋좁
노바에브람에플쳐로반드시누을거시니



조호를턴츠스목

四

의교회형호음기풀우
혜브람又좁단말이라 비록우미호자아비와
우미호지어미라도또호맛당히감격호야니
러나판가신척을기드리지아니호고조원호
야거두어기를재장츠고서로니음드라실거
시니이제로조차버음으로호흥년에도주리
물우노아희업고길식에젧을일흔어린거시
업슬이니 은퇴이념외음고공회힐향_{감서}으로
호음난단
말이라 호야턴디로더브러고크음기호가
지옵시니엇지아름답지아니호리오 열줄
류음을우헤쓰음고아래로아홉가지절목을

진셔와언문으로쓰옵고번역하야오부와팔
도에두루베프와배기리준헝헝옵게하올져
일은흥텐에드니며비논아희논열실을하하
표길삭에브린아희논세실을하하야다스부
관이듯고보논대로진홀청에보하면진홀청
이거두어기르되비논아희논흥텐썩보리나
기식지기르고브린아희논풍흥에거리세지
말고절목대로시헝하올져

일은드니며비논아희논부모와결네업고쥬
인도업서의지업스류를하하야하되당부하

주홀던축스목

五

인파당니임장들이후부동하야소겨고하논
일이이시면통히다스려그논를시하고비록
거두어기른휘라도부모와결네와쥬인쥬에
만일와셔츠리이시면결닌의게초스바다
그니력을주세히사하하야명빅하야의심이
업스후에당부로셔월일을괴룩하고다짐밖
고버여주되만일결네와쥬인의형셔적이가
히브칠만하고도전혀돌보지아니하야짐쥬
나가빌게하야논각별이두루츠자엄히신척
하야도로맛져하야금다시뉴산하논페가업

게으를져

일은두루비논아희거두어먹이기논진흙청
외창문밖빈곳에별노음을무더벼머물곳을
하교냥식주기논진흙청식례대로열설노셔
닐곰설시지논날마다하나희게설칠흙장두
흙머우두님식주고여섯설노셔네설시지논
날마다하나희게설닷곰장호흙머우하년식
혜여주어진흙청고직이로하여금주장하야
먹이게으를져

일은내여브린아희논당부로서보논대로보



진흙년축소목

六

하되궁벽하고기픈곳과교외조금먼곳은부
판이비루눈으로보지못하여시나소문이잇
거든주세히슬퍼거두어다가진흙청으로보
네되대져기세쓰인아희길시에브리논거시
별노연피잇지아니면곳이만만브두이호일
이라은정을쓴논부모논진실노심히블인호
거니와알이미업논어린거시야소므슴죄리
오그축은호무음에맛당이구활할도리를잡
히하리니호갓부판만방문흙썩이아니라비
룩지나가논사름이라도만일논으로보논일

이잇거든즉시임장의게맛저몬져진흙청으로보내고인항야당부에통항올져

일은브린아희를거두어기르기논비논녀인
중에젓잇논이를곧희여호녀인의게두아희
식은화젓먹이논녀인은항로빨호되너흙파
장서흙파머육세님식혜여주고비룩비논사
름이아나라도조원항야갓다가기르려항논
사름이이시되간난항야스스로먹을도리업
서젓먹이기어려워항논재잇거든다만호아
희를맛지고날마다빨호되와장두흙파머육

진흙던추스목

七

두니브시차하항올져

일은비논아희와브린아희를의논치말고조
원항야기르려항논이잇거든속머던스목대
로진흙청으로셔님안을성급항고제조식되
기를원항거나종되기를원항거든각각그소
원을조차시항항오되빅성일지공스천일지
혜지말고다기르논자의항려항논대로항되
뉴집일이치지못항야처음은기르다가나종
은아니거든물시항고그부모결네중에석돌
전에찾거든기른갑슬비히갑흔후에도로초

일은외방은각각그면니임이보는대로본판
에보하거든본판이그허실을슬퍼비논아희
는다만설진하노고을썩거두어기르고비린
아희는설진하노아니키를의논말고동동하
야거히하게하며죽먹이고젓먹이논절차와
거두어기르논법은한결치서울절목대로
시히하게하노곡식단은상진곡으로회감하
게하노장파머육단은본판으로담당하노미
삭금음에인쿠수와곡물수를감영에보하거
든감영으로셔고을수를조렬하야후록하야

조흔턴츄스목

九

장문하게하노고도성척단은진출청으로올녀
보내여버빙고하게하노되낙읍슈령이후스목
을어긋여거히을잘못하면경청법비대로감
시가장문하야논죄하게하노어소의럼탐을
쇄에일테로적발하야종류하야감쳐하올져
일은다하노지못하노조건은조초마련하올져

자가기를허하고구하야살온후에제가슬희
여피하느쟈느종이상턴비반호를노다소리
고구활후위세로도로서아스라하느쟈느법을
굽이느를노의논하올져

일으비느아희와브린아희죽먹이고젓먹이
느절치만일판가로서검척지아니하면일흠
만이고실이업기쉬오니미삭금음에진흠청
낭판이그슬찌고여위기를보고그브즈런하
고게으르기를슬퍼잘못하느고적이와잘못
하느젓어미느고경척하오되당부판원이

진흠턴츙소목

八

후보장을히홀이하거나진흠청낭판이거두
어기르기를브즈런이못하야럼탐을새애현
발하거든진흠청으로셔초괴하야논죄하올
져

일은비느아희와브린아희님을거시업스류
느진흠청전례대로하야조흠머로헤아려지
어주고젓어미도후님을거시업거든보느대
로일체로지어주게하고병든류느진흠청으
로셔헤민셔에분부하야하여금보아구료하
올져

어 소귀호별진소류음

왕이이러트시그르샤디슬프다너경귀와호
셔빅성들이오히려니르되너가옥식을들아
하고마는담을형안이녀이는가하는다기를
노부터겨을파히밧고이기예니르도루자기
를당하야도능히자지못하고먹기를당하야
도능히먹지못함은오직너희등의파려할얼
골과하여진오스로전련
너업터지고여을
단말숨이라 하며
황급한형상이내눈가온대잇는듯하미라너
희등은오히려능히내마음을아는다모로는



류음

一一

다슬프다경귀와호셔의흥년만나미므르두
히라지작년인즉경귀와호셔두도밧기는모
든도는잠간풍년하야달니흥년경소의요란
하며근심하미업는고로므릇진홀하고견감
하는일을전혀너희등의게만뜻하야다행이
연척
게빅성이주려브리
되단말숨이라 한환이업더니전년인
즉여소도의주린거슬알외는장계서로니어
올나들니이니거의슈응을결을치못하는지
라오직내낮파밤으로근심하야초블을혀북
기에니르미멧들이된줄을아지못한지라후

곡식을음겨가먹이게하고후니탕^{궐니곳집}
^이을보려진흙을보태여동셔로빙르드시^{란말습}
야게요게요점제하고경귀와호셔는셔을셔
머지아니하야소문이그장갓가오니봄되후
에도진흙을그일을가히종편하야권져살을
거신고로하번구획하후에문두서로니준드
시하니너희등이그날노배진실노심드렁이
더간다하느다슬프다경귀와호셔팔십여고
을에만회수십만에느리지아니하나전답을
두고스스로먹는재멋사름이리오비록전답

문음

二

이잇다하야도오히려가히거들거시업스려
든하물먹는님의고공이하느뤄셔너비루풍년
이라도히뜻도록피로오물면치못하려든하
물며여러번주린탓히셔너고을에조셰는갑
지못하고이웃에꾸기느임의손허져병파항
에거스다진하야열입의주리느거슬구치못
하니이삭의남은거시엇지하번비브르기를
브라리오내일노배너희밥업스줄을알며바
다그이척박하야면농이맛당치아니하고산
협에슈지는또밭출샹히위간난하계집은가

히나흐면취업교우미흐빅성은가히흥정흐
실업서구돌에드느절^{말겨을이}란이이의지
나되몸에남을모척이업스니내일노버너희
웃업스줄을아노라밤이업고오시업스면엇
지히를지너며히지내기도오히려어렵거든
흐몰며이공흐봄이씩녀져즈음씩섯들눈이
싸히지아니흐고겨을일귀오히려더우니싱
각건대너희등이판가에환자를밧칠제가히
흘간산새를면호야시며^{출간산은새어러모}
해가니름을기야가히모른수취박희자곡에

문음

三

든고기를구할년가사름은후겨을이더우므
로써근심하나나난도로혀너희를위하야깃
거흐더니남평후에흐를깃흐치위이러듯하
야더온집에여러벌갓옷도오히려몸에필박
흐는괴로오마잇거든초가집독으로흐창에
엇지등을썬느더우미이시리오거포주린삿
해촌위엄을막기어렵고늙고어린류는또강
흐고점으니와다르니너희등의부모와쳐지
능히흐그릇밤과흐소음오슬어더버그얼고
주리기를면하야길에서부르지치기에너르

지아니흐얏느냐구급하느정소느전년겨을
부터흐고셜진홀기약은이의새히니르러시
니래히환자지축하느피로오물면흐고점점
먹이기를기드릴곳이이셔초기홀즈음에능
히싸지느탄식이업스며진홀을바들새에또
흐허실상몽하느환이업스며곡식의정흐고
되와말이준흐고소곰과장이또흐고말슬일
치아니하야시며원들은각각정성을다하야
아전파향외간위를용납지못하느가내쥬야
로동동하야엇지일쥬홀새나너희등을너즈

문음

四

리오특별이니탕에지물을느리와원진홀받
기별노하순을먹이문곳너희두도에전년에
이의형호전례로되금년은동남북세도에홍
년이너희두도에셔심하매별순이져세도에
몬져하야치너너희두도빅성이그아니발을
적이드디엿날을바라볼오되엇지전에후
하시고후에년박하시노하느냐너니탕을베
프기느너희등의슈한을위하미라너희보야
흐로거포주리나내그엇지앗기리오이제경
귀에돈이천냥파호초일빅근파단모삼빅근

파호셔에돈삼천냥파호초일백근파단목이
백근을느리오느니슬프다이거시비록적어
흐열을양식도차지못하나뜻은실노은근하
야진실노밤낮근심으로셔나시니너희등은
그아느냐모로느냐도라보건대이제삼원지
원월지원일이이에니르고만물이다소복하
지원이라니오늘은꽃한나라님금
한문제봄에조셔를
리와백성을진홀
다하시이조셔를반포하던날이라만일너희등
으로하야금적이잠간주리고치우미업스즉
하느름음이깃거하샤므참내풍년을주어팔

㊦ 료음

五

방에함포하는것부를장츠너희등으로터부
러흐가지로홀거시니엇지즐겁지아니하리
오구중이김고데턱들흐먼니격하야너희몇
만이나흐주린백성을감소와원들의게맛져
시니진실노능히일분이나내름음을몸보는
재이시면스스로가히게으르지아닐거시니
또엇지만히날으리오

테어 왕세조척네 후각도신군포절반탕감류음

각도구환과공유제시민
요역반인속전견감부

왕이 이르드시 마루샤되 나라희길호영식이
시면퍼고호기를길게호여나라가온대은혜
를너로게호는자는버그경소를훈가지로호
는배라이제이경소는 황천과 조종이무
연이도으심이요태산과반석처럼평안호배
니역만년의넷을쳐로니큰복의진실노
여괴근본이라이엇지다만나호사람의경시
리오곳팔방신하와빅성의경시라지작된구

문음

월이전은나라형세능연함이츄호류호하니

면류줄고치약
호년말이라 진실노빠코빠호신여지르심

이반드시창성호고빛난아름다움을열어내
실줄은아되키양 종조의의탁이동호음을

싱각호오면스스로어탐을돌너머못기물씨
뜻지뜻하니이때의팔방신하와빅성의날을

위호여근심호는자를태개가히알디넵엇지
다호히압별의 동궁의속
한별이라 빛츄복게호는상세

이에 텅고의무지게호르임던절의이시너
선조란신들이
란말삼이라 일표는크고높으며천질은너

큰고두터워우흐로 주턴과 주궁의무름
 흘두루는즐기심을돕습고아래로억도의^{성벽}
^라무을늘으혀브라미역시니이에벼슬하
 는니와션비는도정파들희셔경소로와하고
 녀름지이하는스나희와뵈는계집은밭희
 셔경소로와하고길가는나그니와장인파장
 소들은져재의셔경소로와하여드름질하는
 군소와천호노예와방어리와귀먹으니와다
 리저는이시지니르히아니흔흔히서로즐겨
 하리업서사름사름이과질의송을전하고
 절과

주름음

一一

은세턴의주소 집집이성히의노래는소스니
 만탄말이라 ^성히난^동공^라나 ^사는^상셔^라 ^사태^당호^하기를^당하^니손을^묵
 거빌고날노척봉하기를브라매손가락을굽
 혀기드리니므룻나의신하와빅성의날을위
 하여깃거하는재또엇지그지쿠하며부즈런
 하노희라그근심하는밭자도병이의천성이
 요또그깃거하는밭자도병이의천성이니
 의은혜를요구하며은턱을간구하는디이심
 이아니나우흐로부터보면엇지그뜻을디답
 할도리업소리요함을며이제우리원량이

공동

을 이르신 아난 것파싱각은점점열니고거름
말씀이라^말아난것파싱각은점점열니고거름
과말은일즉이일위시니^말덕의법과례를상
고^말고우리나라희듯듯함법을상고^말하여
성조의광어^말하오시^말턴^말시^말판^말어^말난^말즉^말위^말하^말도^말라^말온
히로^말벼^말한^말나^말라^말님^말군^말의^말미^말리^말세^말오^말는^말큰^말모^말척^말을
싱각^말하^말여^말이^말에^말길^말하^말나^말들^말을^말즐^말히^말여^말크^말게^말성^말하^말우
의^말후^말드^말러^말닐^말니^말이^말구^말의^말문^말을^말열^말고^말니^말이^말구^말문^말은^말켈^말
명^말하^말여^말빅^말판^말의^말진^말하^말를^말바^말드^말니^말자^말만^말호^말오^말소^말로
례^말를^말행^말하^말매^말엄^말연^말히^말절^말노^말일^말위^말시^말니^말이^말는^말진^말실
노^말나^말라^말희^말행^말통^말하^말고^말큰^말음^말이^말며^말샤^말직^말의^말신^말령

문음

三

고^말고^말진^말복^말이^말라^말이^말날^말이^말경^말소^말는^말나^말의^말홀^말노^말들^말배
아^말니^말라^말맛^말당^말이^말나^말라^말가^말온^말대^말은^말혜^말를^말닐^말니^말하^말여
만^말성^말으로^말더^말부^말러^말하^말가^말지^말로^말하^말여^말벼^말우^말리^말원^말량
의^말화^말귀^말를^말인^말도^말하^말고^말길^말게^말비^말는^말근^말본^말을^말할^말거^말시
매^말이^말에^말내^말파^말기^말를^말베^말퍼^말문^말두^말를^말위^말로^말하^말여^말기^말부
게^말하^말고^말샤^말던^말을^말행^말하^말여^말죄^말잇^말는^말이^말를^말노^말코^말플^말니
게^말하^말니^말은^말혜^말밋^말기^말는^말머^말러^말도^말니^말르^말지^말못^말하^말디^말업
고^말상^말을^말의^말논^말하^말즉^말비^말록^말적^말은^말나^말반^말드^말시^말귀^말류^말하
여^말벼^말나^말의^말즐^말거^말은^말물^말하^말가^말지^말로^말하^말는^말뜻^말을^말보^말고
이^말우^말고^말또^말싱^말각^말하^말니^말나^말라^말안^말희^말기^말장^말블^말상^말하^말고

에 옛분 재 곳 몸으로 베풀 구 실을 응하느니라 대
개 강은 차는 탈을 만히 하고 부은 차는 면이
니 적으니 후한 짐이 부은 형테의 신포를 당하
고 후한도 이를 도망하며 남고 허명파 첨역의
물니 물당하느니 할 필을 비록 더러시나 할 필은
오하려 잇고 비공이 비록 감하느니 노공이 주여
하느니 할 가지이 내 빚성이 편덕도이 곧하며 피
로 오물바드느니 어진 사름의 믿음이었지이에
추연치아나 할리오미 양별노더러 무홀하느
정스를 할하여 적이 도현하급하거슬 풀고적

문음

四

하되 경비와 군슈의 좌편으로 잇글니 고우편
으로 걸니 세여미 처능히 못하엿더니 이제이
경스를 당하여 만일 크게 광탕지전을 베퍼내
피잔호 빚성으로 하여 공골오로혜 턱을 적시
지 못하게 하면 빚성의 옥을 응하며 무료함은 아
직 두고 내 믿음의 평안하랴아나 할라함며
지물이 후터지면 빚성이 모히고 지물이 모히
면 빚성이 후터짐은 성인의 마르치시미 베풀
미 단청고 하시니 경비와 군슈의 덕지지 못함
이오이러들 재일의 속하미라 일노 베풀 평안하

성의게 효유하야고하야하야곰내길게벌고
평안하거슬씨치년뜻을알게하라



미아

六